소년단

1958.6

소년단원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동무들을 친절히 돕는다!

김 영자 동무는 사리원 제2중학교 대 13 분단 (인민반 4학년) 분단 위원장이다. 그는 언제나 분단 동무들의 생활에 깊은 주의를 돌리면서 그의 요구와 애로들을 제때에 해결해 주도록 힘쓰고 있다.

영자 동무네 분단에는 지난 해까지만 해도 한 순녀, 리 복자 동무들과 같이 성적이 매우 뒤떨어진 동무들이 있었다. 영자 동무는 먼저 이런 동무들이 학습에서 뒤떨어지게 된 원인을 찾아 내고 그들을 도와 주기 시작하였다.

순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데는 이런 까닭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홋어머니를 모시게 된 순녀는 새로 맞은 어머니가 서툰 집안 일에 자리잡힐 때까지 동생들을 돌보아 주면서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드리느라고 공부할 짬을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영자는 순녀네 집을 자주 찾아 가서 그가 맡은 일을 도와 주면서 함께 공부도 하였고 때로는 그의 어머니에게 순녀의 뒤떨어진 공부를 지도해 줄 것을 부탁 드리기도 하였다.

영자 동무의 이 부탁은 순녀 어머니의 마음을 찔렀다. 그 후부터 순녀 어머니는 순녀가 하던 일을 덜어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영자 동무의 꾸준한 도움을 받은 순녀의 성적은 점차로 좋아져 갔다.

영자 동무는 복자 동무의 학습도 짬만 있으면 언제나 꾸준히 도와 주었다.

이렇듯 항상 동무들을 친절히 도와 주는 영자 동무는 분단 사업도 훌륭히 조직하고 있다. 그가 어떻게 분단 사업을 조직하는가는 《우리들의 페지》에 실린 그의 분단 6 월중 사업 계획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의 《꼬마 선생》

개천군 외서리 마을에서 《꼬마 선생》으로 불리우는 전 석빈 동무는 개천 제2 중학교 대 분단 위원이며 학급장이다.

그가 이렇게 마을의 《꼬마 선생》으로 불리우게 된 것은 지난 겨울 방학 때부터이다.

방학이 갓 시작된 어느 날 마을에는 어른들이 공부하는 성인 학교가 시작되였다. 이것을 알게 된 석빈 동무는 먼저 동무들과 의논하고 성인 학교에 나갈 어른들의 집안 일을 돌봐 드리면서 모두가 빠짐없이 공부하러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나섰다.

그는 매일 같이 동무들과 함께 조기회를 끝내고는 어른들이 나와 공부할 선전실에 난로를 피운 다음 집집을 찾아 다니였다. 그러면서 가마니 짜기와 새끼 꼬기 등 일에 바빠 나가지 못할 어른들이 있으면 그 일을 대신해 드리면서까지 성인 학교에 나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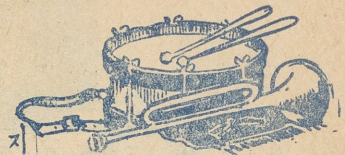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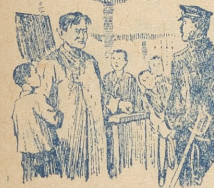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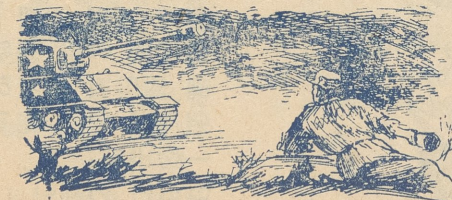
그리고 석빈 동무는 성인 학교를 담당한 선생이 회의나 강습에 참가하고 안 계실 때면 선생을 대신하여 직접 어른들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였다.

더욱히 그는 전쟁에서 피해를 입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어른에게까지 공부를 배워 주어 산수 가 감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석빈 동무는 마을의 《꼬마 선생》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다. 마을의 《꼬마 선생》 석빈 동무는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의 문화 건설을 위하여 《꼬마 선전원》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면서 계속 짬만 있으면 성인 학교 사업을 힘껏 돕고 있다.

앞표지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리 종록 촬영

소년단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6호 내용

글 리 맥　　　그림 남 현 주

—항상 준비!
우리는 서로서로 경례를 하며
우리는 서로서로 맹세를 한다.
김 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본받아
배움에서 언제나 최우등 될 것을.
비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배워서
사랑하는 조국에 기쁨을 주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받을 것을.

김 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본 받아
로력을 사랑하는 소년단원 되여
제가 할 일 모두모두 제 힘으로 하고
남을 위해 좋은 일 더 많이 할 것을.
어른들은 존경하고 동무들은 사랑해
어른들껜 칭찬받고 동무들껜 좋은 동무
서로서로 못 잊어 사이 좋게 지낼 것을.

—항상 준비!
우리는 서로서로 경례를 하며
우리는 서로서로 맹세를 한다.
로동당 기'발 높이 힘 차게 나아가는

민청원 형님들 뒤를 따라서
우리도 씩씩하게 나아갈 것을
원수의 총뿌리 앞에 놓여도
굴할 줄 모르는 투사가 될 것을

민청원 형님들 뒤 따라서
앞날의 사회주의 건설자 될 것을.
민청원 형님들 쇠'를 뽑는 영웅되니
우리도 크고 크면 쇠'를 뽑는 영웅돼
민청원 형님들 농사 짓는 영웅되니
우리도 크고 크면 농사 짓는 영웅되고
민청원 형님들 산도 허무니
우리도 앞날에 더 큰 산 허물 것을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한다.
서로서로 경례하며 서로서로 맹세한다.
남쪽 땅의 어린 동무 하루바삐 만나서
함께 놀며 함께 뛰며 함께 배울 것을.
온세계 어린 동무 손에 손 잡고
해'빛따라 씩씩하게 나아갈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외우고 외운다.
—준비하자!
그러면 언제나
—항상 준비!

야학방

글 박 달　　　그림 유 환 기

《글은 읽어야 되겠는데 학교도 없고 돈도 없으니 읽을 수 있어야지!》

하는 목소리는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들어 본지도 먼 옛날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해방 전 왜정 시대에는 이 골목 저 골목을 많이 돌아 다니면서 여러 어린 동무들을 울게 했으며 그의 부모들까지 눈물을 먹음게 했습니다.

왜정 시대에 학교에 다니자면 입학금이라는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몇십 원 (지금 돈 몇 천 원과 같음)내야 했고 게다가 매달 월사금 (수업료) 몇 원 (지금 돈 몇 백 원)씩을 먼저 내야만 학교에 다니게 되였습니다.

만일 이런 돈을 내지 못하는 날이면 학교 문 앞으로도 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적게 만들고 공부하는 학생도 적게 받습니다.

1930년 이전에는 오늘의 인민 학교와 같은 소학교를 한 군에 겨우 두 개 아니면 세 개를 세워 놓아서 그 학교에서 일 년 동안에 모집하는 학생 수는 전부 백 오십 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요. 학교가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런 관계로 지방에 있는 아버지들은 없는 돈이라도 모아서 학교를 설치하려고 하여도 왜놈들은 학교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당이라는 것을 겨우 설치하여 공부를 시키지만 그러나 서당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 한 학생일지라도 왜놈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서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 했습니다.

이와 같이 왜놈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여 조선 사람들의 배움의 길을 가로 막아 모두 무식쟁이로 만들 배'심이였지요.

그러한 관계로 돈이 없어서 학교 문 앞에 살면서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과 그리고 학교가 멀어서 다니지 못하는 학생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공부는 해야 하겠고 해서 야학방을 각 처에 설치하고 낮에는 농사 일을 돕고 밤에 공부했습니다.

이것도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놈 주재소에 가서 야학방을 설치한다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허가도 그리 쉽게는 되지 않습니다. 설사 허가는 한다 해도 왜놈들은 차츰 이 구실 저 구실 부쳐 가면서 결국에는 해산하도록 조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비밀 야학실을 설치하고 글을 배워 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왜놈 주재소에 발각이나 되면 야학교 선생과 학생들은 모두 주재소에 붙잡혀 가서 모진 매를 맞으면서 조사를 당합니다.

그럴 때에 보면 어떤 학생은 매를 맞으면서도 왜놈에 대한 적개심이 북바쳐 아무 말도 함부로 하지 않지만 어떤 학생들은 겁부터 먼저 집어 먹고

《나는 싫다는데 아무개가 함께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하고 비밀을 지키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욕보게 하는 나쁜 학생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재소에서는 《요놈의 겁쟁이는 이번에만 톡톡히 혼을 내면 다시는 끔짝 못 할 것이다》하고 한바탕 두들겨 패고는 내 놔 줍니다.

그 다음에는 겁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는 야학방으로 다니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순사놈들을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끼리 야학방을 다시 시작합니다.

글을 가르칠 때면 야학방 문에다가 밖으로 불이 비치지 못하게 두터운 종이를 치고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가르쳤습니다. 이러는 한편 순사놈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야학방 문 앞에 보초까지 세워 놓는답니다.

먼 길'가에 선 보초가 순사를 발견했을 때에는 순사놈들 몰래 석냥'불을 켜서 야학방 문전 보초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문전 보초는 곧 야학방으로 들어가 알리게 되지요.

그 다음에 야학방에서는 문에 친 두꺼운 종이를 떼고 불을 끄고 책을 함께 모아서 다른데 가져다가 감추고는 순사놈을 피합니다. 순사가 동리에서 떠난 다음에야 다시 모여서 전과 같이 보초를 세워 놓고 또 공부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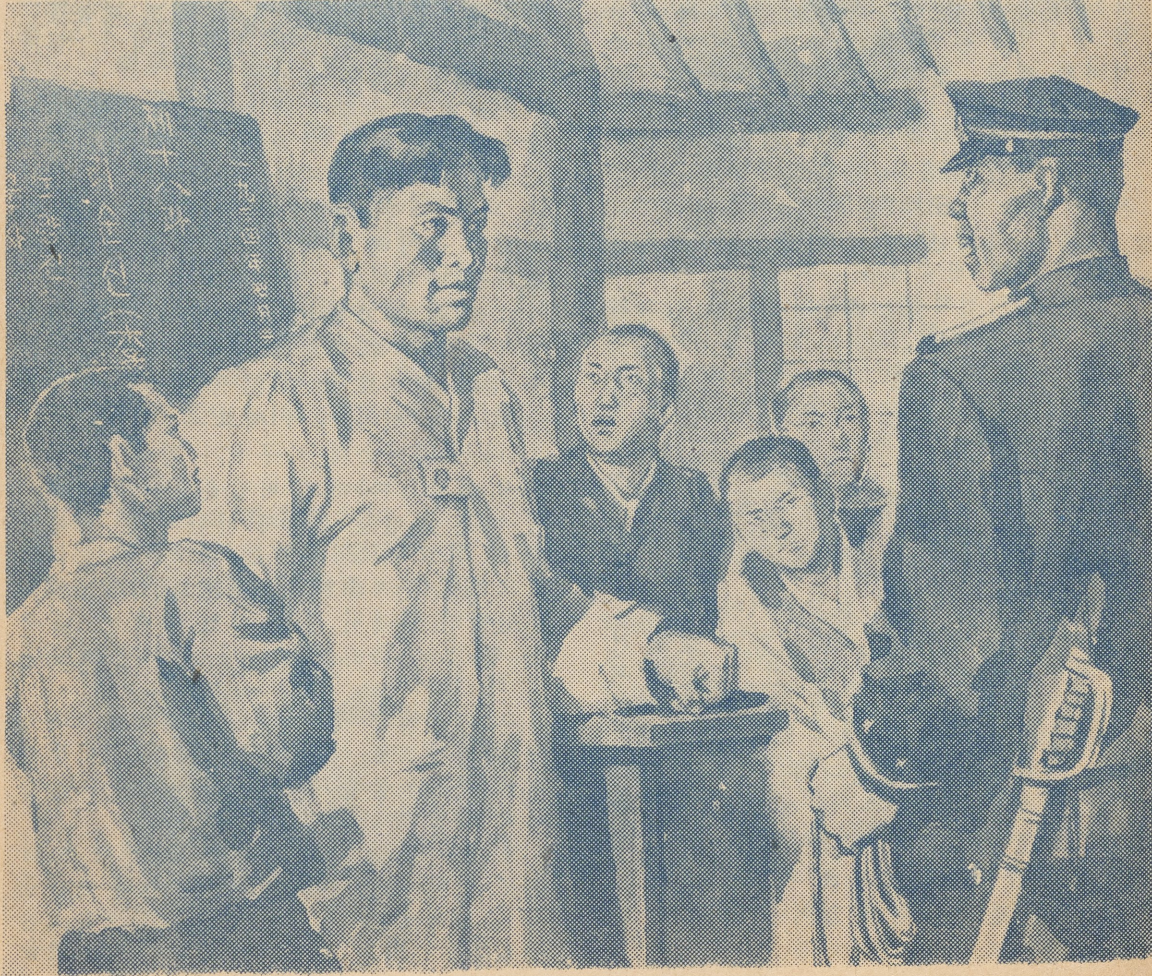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조금만 잘 못하면 큰 일이 납니다. 그 동리 나쁜 놈들이 알고 주재소에 고발하든지 또는 잘못하여 순사에게 들키는 날이면 영낙없이 주재소에 붙잡혀 가서 숫한 매를 맞게 되지요. 야학방 선생은 잘못하면 징역까지 가고, 말을 잘하면 경찰서에 가서 구류나 하고 석방된답니다.

왜놈들은 조선 소년들이 야학이라도 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놈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거저 공부하기 위하여 야학하는 것은 좋지만 공산주의 공부를 하기 위하여 야학하니까 금지한다》고 뻔뻔스레 떠벌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산수와 국어와 일본말만 가르쳐도 왜놈들은 공산주의를 가르친다고 없는 죄를 마구 뒤집어 씌우기 마련이였습니다.

1934 년도에 내가 살던 량강도 보천군 운남리에서는 주재소 사택 빈 집에 야학실을 설치하여 놓고 매일 순사들의 감시를 받는 조건 밑에서 야학을 시작하였는데 그것도 몇 달이 못가서 재미없다 하여 금지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보아서도 순전히 조선 사람은 무식쟁이가 되여 일본놈의 심부름을 드는 머슴'군이 되라는 정책임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소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놈들이 공부를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끝끝내 공부하여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선 사람들은 남의 식민지가 되여 언제나 노예 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잘 살아 보자는 불타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왜놈을 반대하는 조직에 참가하며 그 선전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조직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즉 회의할 때에 보초도 서며 조직과 조직 사이의 련락도 다니며 통신도 날라 주는 등으로 왜놈을 반대하는데 큰 역할을 놀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일부 지대에서는 야학방을 계속하는 곳도 있었고 어떤 지대에서는 일본 경찰의 감시가 너무도 심하여 야학방은 유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몰래 배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배워 가지고는 집에 돌아 가서 새벽을 리용하여 문에다가 이불을 쳐서 불이 밖에 비치지 않게 하고 독습하여 가면서 지식을 닦았습니다.

또 어린 동무들은 정찰에 아주 필요합니다. 만일 왜놈 경찰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면 어린 동무들은 놀러 다니는 척하면서 정찰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왜놈들의 비밀을 살작 알아 오군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한가히 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 여 살만 되면 농촌 소년들은 땔 나무도 해야 했고 발갈이 때면 그 심부름도 들어야 했고 김도 매야 했고 가을에는 추수도 도와 주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소년들은 잠시도 쉴사이 없이 일하면서도 공부도 하며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싸움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8. 15 해방을 맞이한 후부터는 우리 나라 소년들의 처지는 어떻게 바뀌여졌습니까! 김 일성 수상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체 조선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공부하는 자유를 주었으며 조국을 사랑하는 자유를 주었으며 그 전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부하고 윤택한 생활까지 가져다 주게 되였습니다.

우리 어린 동무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인민 학교는 매개 리에 설치되였으며 초급 중학교는 매개 군에 십 여 개씩 설치되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 누구든지 빠짐없이 공부하게 되였습니다. 농촌에는 성인 학교를 설치하여 과거 왜정 시대에 배우지 못한 농민들을 공부시켜 깨우쳐 주며 그들에게 농업 기술도 배워 주고 있습니다. 공장 지대나 도시에는 인민 학교와 초중은 물론 야간 초중에서 대학까지 설치하여 로동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공부를 자유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각자가 다 자기 소원 대로 공부하며 자기 소원 대로 발전하여 우리 조국 건설에 있는 힘을 다 발휘할 기회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왜놈들은 우리 조선 인민을 자기들의 영원한 노예로 써 먹기 위하여 무식쟁이로 만들려고 했다면 해방된 우리 조국은 우수한 아들딸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국을 우리 조선 인민의 손으로 영원히 다스려 나갈 것을 마련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반부와 한날 한시에 일본 제국주의 기반에서 벗어 난 남반부에서는 오늘 미 제국주의 야수들의 압제와 그 주구 리 승만 역도들의 야수적 통치 하에서 인민들이 무한히 압박 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어린 동무들은 동무들과 같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대신에 쓰레기 통을 뒤지며 구두 닦기와 거지 노릇을 해서 사는 동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혹시 학교를 다닌다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집 자식들 만이 겨우 다니는 형편이며 보통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은 돈이 없어서 입학금이니, 수업료니, 잡부금이니 하는 바람에 학교 문전에도 가 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경우에 처하게 된 것은 모두 미 제국주의놈들과 그 주구 리 승만이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무들은 힘을 합하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놈들을 물러 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김 일성 수상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를 잘 받들어 소년단 생활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학습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기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장래 주인이 된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은 나를 이렇게 키워주었다

자강도 회천 인민 학교 대
대 위원장 량 진 삼

그림 백 대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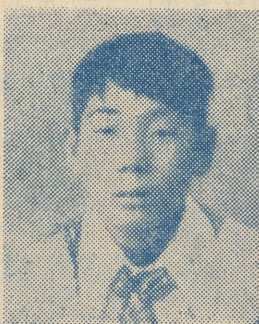
우리 소년단원들의 가장 뜻깊은 명절인 소년단 창립 열 두돐의 날은 가까와 온다. 나는 지난 열 돐 맞이 날에 처음 붉은 넥타이를 매고 첫 명절을 맞이했고 이번까지 세 번째의 명절을 맞는다.

이 기간 사랑하는 소년단 집단은 나를 대 위원장으로까지 키워 주었다.

지금 와서 생각할 때 나는 입단한 처음에는 참말 한심한 아이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나는 집 사정이 곤난하다는 핑게를 대고 자주 결석하거나 조퇴를 해서는 멋대로 남의 밭 무우를 뽑아 먹으며 강'가로 돌아 다니며 장난했다. 또한 공부 시간이면 선생님의 눈을 피해가며 밥을 펴 먹은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였다.

선생님이 돌아 서서 글을 쓸 때는 우쭐해서 자리를 떠나 왔다 갔다 하며 편지를 돌리며 장난했다. 학교에서 교통 도덕을 지키라고 날마다 주의를 주는 데도 나는 듣지 않고 길에서 뽈을 차다가는 바쁜 자동차들을 멎게 한 때도 있었다. 이런 행동에 대하여 분단 동무들은 여러 번 나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동무들은 분단 모임을 열고 나에게 충고를 주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충고를 준 동무들을 외딴 곳에서 기다렸다가 막 때려 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분단에서 군사 놀음이나 유희를 하며 놀 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노는 척 하며 그들을 때려 주었다.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나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분단 동무들과 동 떨어져 있는 것이 외롭게 생각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더욱 못된 장난에 열중하였다.

분단에서는 내 그릇된 행동을 고쳐 주기 위해 벽보를 통하여 또는 분단 모임과 분단 열성자 모임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벽보도 찢어 버렸고 타일러 주는 열성자들에게 주먹을 내 들군 했다. 이렇듯 나는 분단에서 손을 대지 못할 말썽'군이였었다.

내가 내 잘못을 다 깨달은 후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 후 분단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나를 고쳐 주기 위해 분단 지도원 선생님과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을 모시고 의논을 했다는 것이다.

이 날 모임에서는 나를 벽보와 모임에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분단 열성자들로부터 나와 더욱 친하게 지내면서 나의 잘못을 고쳐 주며 또한 내게 어떤 애로가 있는가를 알아 가지고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의논되였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는 열성자들이 나를 더욱 친절히 대했고 나더러 집에 어떤 사정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얼려 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였다. 분단에서 의논할 일이 있다고 남으라고 했는 데도 나는 뻥소니쳐 내 말을 잘 듣는 강 봉령이와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교문을 나왔다. 우리는 한참 숨이 차게 뛰여 내려 오다 잔디밭에 몰켜 앉았다. 나는 주머니에 든 석냥갑을 꺼 내여 잔디밭에 불을 그어 댔다. 마른 잔디는 순식간에 불'길을 올리며 탔다. 한참 기분 좋아 불을 쪼이고 있는데 세찬 바람이 불어 와 확 불'길을 번져 놓았다.

처음에는 발로 밟아 끄려 했으나 불'길은 더욱 퍼져 미처 손을 댈 수 없었다. 불'길은 걷잡을 수없이 퍼져 나갔다. 불이 계속 퍼져 나간다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집과 가축들이며 큰 산봉우리에까지 불이 당길 것이다. 나는 웃옷을 벗어 불'길을 쳤으나 그냥 퍼져 나갔다. 같이 왔던 동무들은 겁에 질려 나를 혼자 버리고 학교로 달려 갔다. 나는 어쩔줄 몰라 헤매다 몸을 뒹굴려 끄려 했으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이런 때 누군가 《진삼이 아니가》 하며 달려 왔다. 그는 분단 위원장인 도일이였다. 도일이는 자기 보다 떨어져 오는 동무들을 급한 목소리로 부르며 책가방을 벗어 던지고 자기 옷을 벗어 불을 껐다. 뒤로 달려 온 열성자들 중 어떤 동무들은 자기 책보를 풀어 모래를 날라다 퍼 부었고 어떤 동무는 산에서 솔'가지를 꺾어다 불을 껐다. 나중에는 모든 동무들이 힘을 합하여 달려 붙어 모래로 둥을 막은 후에야 불은 꺼졌다.

불을 다 끄고 난 뒤에 도일이는 불'길 우에 뒹굴어 시꺼매 진 나의 몸과 손을 만져 보며 《데지 않았니?》 하고 친절히 물었다. 나는 이 순간 얼굴이 뜨거워 말 할 수 없었다. 더구나 동무들이 모두 나를 둘러 싸고 옷을 털어 줄 때 나는 지난 날 일들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이 때 겁에 질려 달려 갔던 동무들과 함께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달려 오시였다. 선생님은 분단 동무들이 뻥 둘러 서 있는 광경을 보시고 안심하는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진삼이! 진삼이는 항상 분단을 떠나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려요. 그리고 동무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생각해 봐요. 오늘 분단 동무들이 만일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였겠어요.》

몹시 꾸짖을 줄만 알았던 선생님은 이렇게 따뜻이 타일러 주시였다. 그리고 분단 열성자들을 불러 무슨 이야기를 하시더니 학교로 가셨다. 도일이는 나의 손을 잡으며 《네가 우리 하구 같이 손잡고 나간다면 우리 분단 사업은 더 잘 될거야》 하고 말했다.

단단히 꾸지람을 들을 줄만 알았던 나는 뜻밖에도 선생님이랑 분단 위원장의 이런 친절한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동무들이 이때까지 말해 온 것도 진심으로 나를 위한 것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 후부터 나는 동무들에게 주먹을 내 들거나 깔보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체육을 좋아하는 나는 며칠 후에 있은 공장 로동자들의 체육 대회를 구경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래 나는 생각다 못해 또 거짓말을 꾸며 대는 수 밖에 없었다.

아침에 학교에 왔던 나는 선생님 앞으로 나가 집에 일이 있다고 핑게댔다. 선생님은 병으로 계시는 어머니가 지금은 어떠시냐고 근심해 주시며 조퇴시켜 주시였다. 나는 이 날 어둡도록 구경을 잘 하고 집 마당에 들어 섰다. 그런데 뜻밖에도 마당에는 나무가 집채처럼 쌓였고 집 주위

는 깨끗이 청소되여 있었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 물'독에도 물이 가득했다.

나는 재'문을 벌컥 열며 《어머니 누나가 벌써 퇴근했어요.》 하고 물었다. 누워 계시던 어머니는 나를 들어 오라고 하시더니 말씀하시였다.

《너희 동무들이 너를 위해 집'일을 이렇게 도와 주는데 네 행동이 그래서야 쓰겠니! 너희 아버지가 전쟁 때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다 돌아 가신 것도 네가 그렇게 행동하라고 싸우시지는 않았을 게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학교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니!》 어머니는 얼굴을 돌리고 돌아 누우시며 눈물까지 지으시였다. 나의 눈에는 어느 사이에 눈물이 핑 돌았다. 눈물 어린 내 눈 앞에는 집에 찾아 왔던 분단 동무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 올랐다. 《분단이 나를 이렇게 위하는데 내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나는 이제부터라도 분단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여 동무들에게 보여 주자》하는 새 결심을 하였다.

나는 이 후부터 분단을 정말 자기 집처럼 여기게 되였고 동시에 분단 동무들과 떨어져 살 수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분단에서 하는 일이라면 힘을 아끼지 않게 되였으며 학습에도 열중했다. 《표마 5개년 계획》 활동에서나 실습지 가꾸는 일에서도 나는 다른 동무들 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다. 분단에서는 나의 조그마한 성과에도 기뻐하며 칭찬해 주며 고무해 주었다. 나는 차츰 분단 사업에 재미를 붙이게 되였고 그 일을 더 잘 하려고 노력했다.

얼마 후 동무들은 나를 7반 반장으로 선거했고 후에는 다시 나를 분단 열성자로 선거했다. 나는 이 때처럼 자기가 분단의 떳떳한 성원이라는 자랑과 기쁨과 행복을 느껴 본 때는 없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 하여 분단을 위해 일하였다.

지난 여름 방학 때 나는 대 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중앙 야영소에도 갔었다. 야영에서 돌아 온 나는 당과 정부의 배려를 더욱 뜨겁게 느끼게 되였고 소년단원의 영예를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오늘 소년단 창립 열 두 돐을 맞는 나의 마음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품 속에서 자라는 행복과 기쁨으로 후더워만 진다. 나는 앞으로 나를 이처럼 떳떳한 소년단원으로 키워 준 소년단 집단을 위해 더 열심히, 더 훌륭하게, 있는 힘을 다 하여 일할 결심이다.

사회주의락원에서우리는살게된다

★ 제 1 차 5개년 계획 중 공업 부문의 전망 ★

공업 총 생산액
2.6배 이상

선 철 3.7 배
린 철 4.5 배
강 철 3.5 배
압연 강재 3.7 배

전력 생산
97억 킬로와트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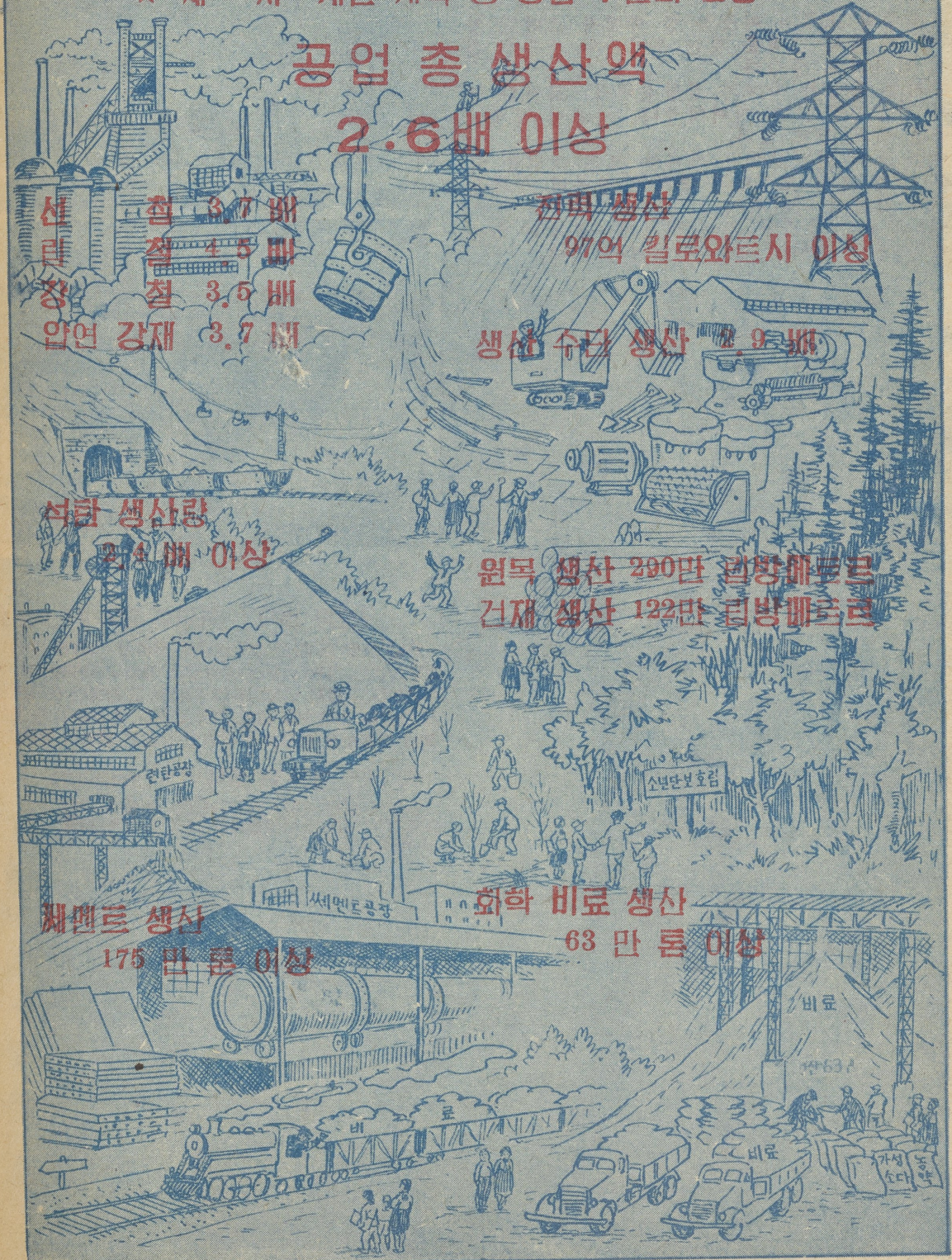
생산 수단 생산 2.9 배

석탄 생산량
2.4 배 이상

원목 생산 290만 립방메트르
건재 생산 122만 립방메트르

세멘트 생산
175 만 톤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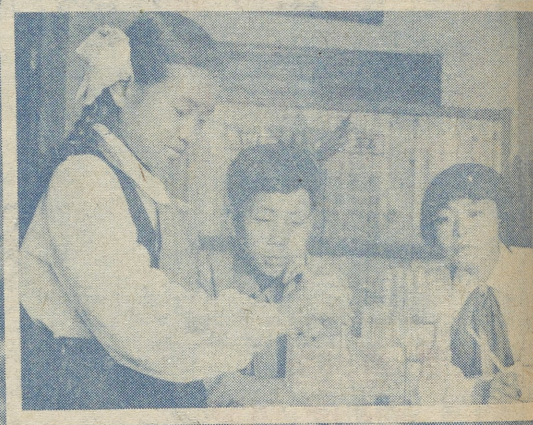
화학 비료 생산
63 만 톤 이상

세멘트공장
소년단보호림
비료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다

사회주의 조국의 따뜻한 품 속에서 소년단 창립 열 두 돐의 명절을 맞는 우리들의 생활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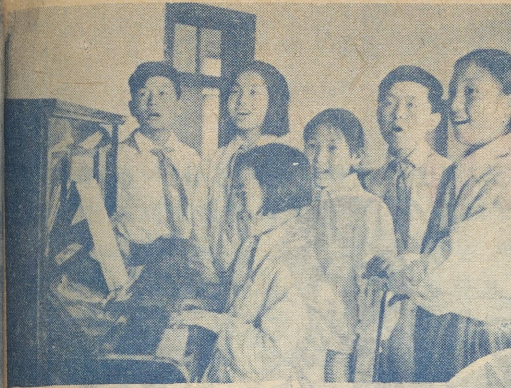
우리는 훌륭한 학교와 실험실에서, 화려한 공원과 야영지에서 그 어디에서나 마음껏 배우며 마음껏 뛰여 놀고 있다.

이는 오직 어린이들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이루워 주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터운 사랑과 배려의 덕택이다.

사회주의로 꽃피여 가는 어머니—조국과 함께 우리의 생활은 날에 날마다 꽃피여 간다.

《방과 후다! 어디로 갈가?》(사진우

지난 전쟁 때 미국 강도놈들은 우리의 학교를 수많이 파괴하였다. 그러나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정전후 무엇보다도 먼저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 전보다 더 웅장하고 아담한 학교들을 새로 지어 주었다. 4,5 층의 새 교실에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우리의 생활은 끝없이 즐겁다.

《이번엔 내가 해 볼테야!》(사진아래)

학교의 실험실에는 가지가지의 실험 도구가 갖추어져 있어 소년단원들은 배운 지식을 더욱 잘 익히고 있다.

《무엇을 속삭이나?》→

가지가지의 체육 도구와 오락 시설이 갖추어진 아동 공원은 즐거운 우리들의 놀음터! 방과 후나 일요일이면 아동 공원은 소년단원들로 흥성거린다.

↑《명랑하고 유쾌하다》

우리의 생활은 명랑하고 유쾌하다. 우리들은 공부를 필한 여가에 춤과 노래로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언제나 노래와 춤으로 흥겨웁다.

《여름은 즐겁다》→

야영! 이것은 해마다 우리의 여름을 즐겁게 한다.

송후, 석암 소년단원 중앙 야영소를 비롯하여 수 많은 야영소들에서 수천 수만의 소년단원들이 즐거운 여름의 한때를 보낸다.

↓《우리는 형제》

우리에게는 외국의 벗들도 많다. 쏘련, 중국을 비롯한 형제 나라 삐오네르들과 우리는 굳은 친선을 맺고 있다.

편지도 오고 가며 선물도 교환된다.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사회주의 조국은 참 좋다

평양 제 16 중 학교 대
제 3 분단 조 정숙

그림 남 현주

우리 분단에서 이야기 모임을 가지기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지난날 자본가놈들과 지주놈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어떻게 착취하였는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나는 해방 후에 자랐기 때문에 자본가나 지주놈들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 놈들 한테서 겪은 고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분단에서는 《일제 시대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떻게 살아 왔는가?》라는 이야기 모임을 가지자는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업에 마음이 끌리여 속히 이야기 모임을 가지자고 서둘렀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에 맞게 잘 조직할 줄 아는 분단 열성자들은 우선 삼신 탄광에서 일하는 로력 혁신자 박 창호 아저씨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로 하자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들은 분단 사업 계획대로 박 창호 아저씨를 찾아 가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들이 찾아 온 뜻을 아시자 몹시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지 너희들은 나보다 더 잘 알게다. 그런데 내가 35년이란 긴긴 세월을 왜놈 자본가놈들 앞에서 일하던 그 때는 참으로 우리네 로동자들이란 마소나 다름없이 일하였단다. 지금 생각만 하여도 진저리가 나고 몸서리치는 세상이였지, 저기 보이는 2갱에서만 하여도 숫한 로동자들이 타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찌끼여 죽고 하였지, 그래서 그 때 로동자들은 탄갱을 도살장이라고까지 불렀단다.》

전라남도에서 살면서 열 한 살 때 고아가 된 아저씨는 열 여섯 살 때부터 철도 공사장이며 광산 등지를 찾아 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린 채 맨발로 몇 십 리나 되는 눈'길을 걸어 다니면서 로동을 하던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그리고는 삼신 탄광 2갱에서 있은 이야기도 들려 주었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였다고 합니다.

이 날도 로동자들은 이른 새벽에 2갱으로 끌려 왔습니다. 그런데 탄갱에 첫 발을 들여 놓는 순간 탄갱에는 가스가 가득 찬 것이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탄광 로동자들은 일본 자본가놈에게 이런데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사사쯔미》라는 탄광 주인놈은 채찍을 휘두르며 《이놈들아! 빨리 일을 안할테냐? 응》하고 돼지 멱따는 소리로 고아대면서 탄갱으로 로동자들을 몰아 넣었습니다.

가스가 많이 들어 찬 탄갱에 들어 서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으며 전신에는 맥이 빠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탄광주놈의 매질에 못이겨 일을 시작하는 순간에 요란한 폭음과 함께 가스가 폭발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0 여 명의 로동자들은 그만 무서운 불'길에 휩싸여 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쯔미》란 광주놈은 사람의 죽음보다 석탄을 못캐는 것만 걱정하며 눈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이 몸서리치는 아저씨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악독한 자본가놈에 대한 밉고 미운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독하고 간악한 자본가놈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 모임에서도 듣게 되였습니다.

김 명자 동무는 왜놈 시대에 오래'동안 로동 생활을 하면서 착취를 받던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놈들의 강압에 못이겨 가스가 많은 곳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렸지요. 그러나 해방과 함께 인민 정권이 수립되면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일제 때에 거적으로 막은 집에서 살면서 비 오면 이구석 저구석으로 쫓겨 다니며 살았대요. 왜놈들은 로동자들이 사는 곳을 〈거라지 마가리〉라고 말했답니다. 그렇다고 집을 수리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자본가놈은 〈딱딱구리〉라는 몽둥이로 등을 갈기군 하였답니다.》

이 날 나는 전체 조선 로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농민들도 그 처럼 비참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였습니다.

김 광숙 동무도 자기 아버지가 한 성호라는 지주의 머슴 살이를 하다가 쫓겨나서 살 곳을 찾아 만주로 떠난 이야기며 그곳에서 류랑 생활을 하면서 밥을 빌어 먹던 이야기며 이 곳 삼신 탄광에서 《고노 사이다》라는 감독놈의 채찍에 매를 맞아 며칠씩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최 인순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해방 전까지 지주의 머슴'군으로 살아 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앓게 된 때였지요. 지주놈은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부려 먹을 대로 부려 먹고는 할아버지가 앓게 되자 자기 집에서 장사를 치르게 된다고 추운 겨울날에 내 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 남의 집 웃간을 얻어 살면서 짚신을 삼아서 장에 내다 팔아 할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한해 지은 곡식을 모조리 지주놈에게 빼앗기고 나니 앓는 할아버지를 대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할아버지는 굶주림에 시달리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주놈들은 이처럼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피땀을 빨아 먹은 놈들입니다. 지난 해 여름에 내가 시'적으로 조직된 야영소와 새해 올까 모임에서 즐기던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참 행복한 세상에서 산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본가와 지주놈들이 있는 세상에서 억울하게 살던 일을 이야기하군 합니다.

사회주의 락원에서 자라며 배우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인순 동무가 격동되여 이야기할 때 나는 지난날 어머니가 말하던 이야기들이 새삼스럽게 생각되였습니다.

지난 여름에 내가 중앙 야영소로 떠나며 기뻐 날뛸 때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먹으면서 《너의들이 이처럼 행복하게 자라는게 누구의 덕택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너는 오늘과 같은 기쁨을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을게다. 더 공부를 잘 해야 한다. 나라의 큰 은혜에 꼭 보답하도록 말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내가 세살 나던 해에 어둠의 땅 남조선에서 북반부로 넘어 오던 일들을 죄다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남반부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소년들을 련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 대로 남조선에 있었다면 남조선의 불행한 소년들과 같이 학교라고는 문밖에도 가 보지 못했을 것이며 깡통을 차고 길'가에서 헤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당과 정부의 따뜻한 품 속에 안겨 방학이면 야영소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며 로동자 아저씨들이 지어준 2층집 학교에서 마음껏 배우며 뛰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에서 자라는 우리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리 순옥 동무는 자기 아버지가 삼신 탄광에서 일하는 기쁨과 문화 주택에서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매주 일요일마다 영화관으로, 모란봉 경기장으로, 아름답게 건설되는 평양의 거리를 걷는 행복한 일들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무네 집에만의 행복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삼신 탄광 로동자들의 아담한 집들 마다에서는 날에 날마다 행복과 기쁨의 웃음 꽃이 핍니다.

나는 이 이야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주의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며 자본주의 사회보다 얼마나 좋은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주의 락원으로 꽃피여 가는 조국을 지켜 싸우다가 전사하신 아버지의 뜻을 더욱 가슴 깊이 아로새기게 되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주의 새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야 하며 그 학습은 조국을 위하여 이바지 되여야 합니다》라고 모임 끝에 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책을 펼쳐 듭니다.

우리 분단의 《6월 중 사업 계획서》

우리 분단에서는 6월달에 할 일들을 아래와 같이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은 전체 분단 동무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분단 위원회에서 완성시킨 것입니다.

분단사업 계획서

언제	무엇을	누가
1일 (일)	국제 아동절을 기념하면서 《고마워라 우리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모임을 가진다.	분단 기발기수 (림 기옥)
1일~3일	보천보 인민 학교 소년단원들과 편지교환을 조직한다.	매반 반장들
4일 (수)	아동 공원에서 보천보 전투 21주년을 기념하는 우등'불 모임을 가지고 보천보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분단 기발기수 (림 기옥)
5일~7일	매일 방과 후마다 대에서 가지는 6.6절 열 두돐 맞이 기념 써클 발표회에 참가할 노래와 춤을 련습한다.	고 보영
10일 (화)	2반 동무들의 《규률 없는 생활과 2점은 누구에게 리익을 주는가》라는 제목으로 분단위원회를 가진다.	2반 반장 (류 복녀)
14일 (토)	웽그리아 삐오네르들에게 보낼 편지를 쓴다	매반 반장들
19일 (목)	신흥 농업 협동조합 견학을 떠난다.	벽보 주필 (문 숙희)
20일 (금)	신흥 농업 협동조합 견학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가지고 좌담회를 가진다.	문 숙희
25일 (수)	《김 명희 동무의 원쑤는 우리의 원쑤》라는 제목으로 분단 모임을 가지고 명희 동무에게 선물을 조직한다.	분단 위원장 김 영자
30일 (월)	분단 위원회에서 7월중 계획과 벽보 편집 계획을 토의한다.	김 영자

사리원 제2중학교 대
제 13 분단 위원장 김 영자

글 리 종렬

그림 정 승교

영원히 우리들에게서 떠나 갔으나 그가 남긴 고귀한 정신으로 하여 언제나 우리들 속에 살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서 나는 포장 김 경철 동무를 기억하고 있다.

1951년 가을이였다. 적들은 매일 같이 우리 부대가 차지한 방어선에 수십 차에 걸쳐 공격하여 왔다. 아군의 후방으로 뻗은 도로 옆에 솟은 307 고지에는 아군의 단독 포가 배치되여 있었다.

307 고지 후면에 솟은 무명 고지의 포병 감시소에서 직사포 중대장 리 윤철은 계속되는 적의 대 구경포 사격을 받고 있는 307 고지의 포 진지를 내려다 보며 진정 못하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 파스를 성급히 돌리고는 송수화기를 들고 《괜찮은가? 경철이, 아무 일도 없는가?》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또 단독 포진지를 내려 보다가는 송수화기를 드는 것이였다… 그러면 수화기에서는 직사포 포장인 김 경철의 믿음직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였다.

《중대장 동지 념려 마십시요, 사람도 성하고 포도 성합니다.》그리고 경철이는 한번은 포진지 속에서 살던 쥐의 일가가 포탄에 놀라 다 피난을 갔기에 좀 적적하다는 롱담도 걸어 왔다.

그러면 중대장도 이에 맞장구를 쳤다.

이럴수록 지휘관의 마음도 좀 트이는 것 같았고 경철이가 한결 미더워 보였다.

경철이는 중대 내 하사관들 중에서 제일 나이 어렸지만 어딘가 담찬 데가 있고 부하들을 규모 있고 단정하게 교양하고 있었다. 때문에 중대장은 이 위급한 순간에도 (그는 꼭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하면서 그를 든든히 믿고 있었다.

직사포의 단독 포진지에는 경철이와 조준수인 인수와 나어린 장탄수 한 명만 남아 있을 뿐이였다. 그나마 나어린 장탄수는 중상 당하여 포가 뒤에 펴 놓은 방수포 우에 반듯이 누워 있었는데 그는 조용하게 《전호 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 가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계속하여 《소년단 행진곡》으로 부터 시작하여 자기가 해방 후 배운 모든 노래들을 조용히 불렀다.

경철이는 포바퀴에 기대여 앉아서 그의 노래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렇다 경철이도 그 노래를 부르며 자라 났다.

그의 지난 생활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는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년단원이였다. 하루의 지각도 결석도 없으며 공부에서 우수한 그를 아이들은 모두 모범으로 삼았다. 특히 그가 소년단원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자기가 맡은 식물 크루쇼크를 훌륭히 운영했기 때문이다.

어느 해 여름 그는 도 민청의 추천을 받아 원산 송도원에도 야영하러 가지 않았던가. 그때 그의 앞에는 얼마나 푸르고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던가. 바다는 마치 그의 미래를 말하는 듯 끝 없이 출렁거리며 설레였다.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을 유린한 원쑤들이 지금 포사격을 계속하고 있구나…

경철이는 자리에서 벌떡 뛰여 일어나 화구를 통하여 밖을 감시하였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 오전 중에만 하여도 련대의 방어선에 돌파구를 뚫려 보려고 계속 달려 들었던 적 땅크 두 대나 파괴하였다. 오후에는 놈들이 한 번도 기여 오르지 않았다. 놈들은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다시 기여들기 시작했다.

포진지 속에서 포연에 얼굴이 까맣게 끄슨 두 포병은 입술을 지긋이 깨물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사격을 계속하였다. 직사포는 쾅쾅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세차게 불을 뿜었다. 두 포병은 온 몸이 땀투성이가 되여 사격하였다.

얼마 후 앞장에 섰던 적 땅크가 불'길에 휩싸였다.

그러나 뒤따르던 놈은 그것을 피하면서 집요하게 달려 들었다.

다시 사격하려고 포탄 상자에 허리를 굽힌 장탄수는

《포장 동무, 포탄이 떨어졌습니다!》하고 비명 비슷이 말했다.

두 포병은 서로 얼굴을 쳐다 보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때 경철의 눈 앞에서는 이와 같은 순간에 자기 몸을 바쳐 임무를 수행한 로동당원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나도 당원들의 뒤를 따라 그들처럼 싸우자. 나는 민청 회의에서 여러 번 훌륭한 로동당원이 되기 위해 준비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사랑하는 당을 위하여…》

경철이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미루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반 땅크 수류탄을 량 손에 움켜 쥐였다.

포탄만 무쇠 바람을 일으키면서 날아나가던 포진지의 화구를 통하여 무쇠 아닌 사람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기여 나간 뒤 얼마 안 지나 포진지 앞에서는 시뻘건 불'기둥과 함께 천동 같은 폭음이 울렸다.

조준수는 화염에 휩싸여 풀석 주저 앉은 적 땅크 옆에서 경철이를 발견했다.

그는 경철이를 포진지에 업어다 눕혀 놓고 호주머니에서 바삐 붕대를 꺼냈다.

그러나 경철의 상의를 찢고 가슴을 어루만져 본 그는 맥없이 붕대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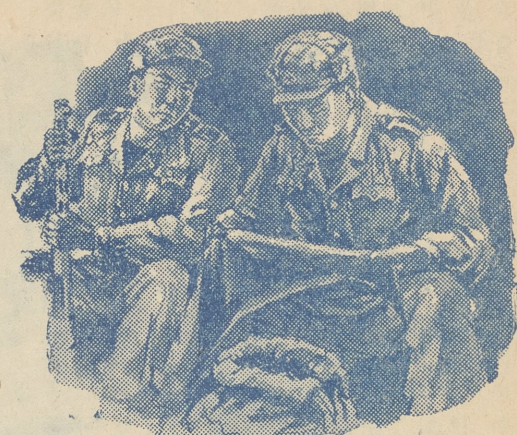
이 때 전화 벨이 울렸다. 경철이는 눈을 번쩍 뜨며 《중대장 동무구만… 송수화기를…》하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절단되였던 전화선이 련결되자 인차 전화를 건 중대장은 상대방의 응답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긴장된 얼굴을 한 중대 특무장과 련락병이 서 있었다.

이윽고 수화구에서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울렸다.

《중대장 동무! 경철이가 보고 합니다! 땅크는 전멸! 중대장 동무… 저를 로동당원이라고 불러 주십시요!》

중대장은 송화구에 대고 《경철이! 경철이! 경철이!》하고 불렀으나 다음은 아무 응답도 없었다.

이날 저녁 포병 중대부에서는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전사한 포장 김 경철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고 그의 소지품도 함께 보내기 위하여 배낭을 들추었다.

묵묵히 앉아서 배낭을 들추던 나 많은 특무장은 그 속에서 꼬기꼬기 꾸겨진 삼각건 만한 붉은 천을 꺼내 련락병에게 보이며 물었다.

《이게 뭐일가?》

《소년단 넥타이군요! 특무장 동무》하고 련락병은 거의 환성이나 올리다 싶이 웨쳤다.

특무장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역시 소년단원에서부터 배워 온 동무가 다르군, 참 용감히 싸웠어…》

이 날 저녁 그의 어머니에게 쓴 중대장의 편지 가운데서 나는 지금 다음과 같은 구절 만을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요. 우리 중대의 전체 포병들은 이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참말로 당신의 아들은 당의 전사답게 싸웠습니다. 당과 조국은 자기의 이런 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

그리운 조국

일본 도교 제10초급 학교
제 6 학년 리 문재

나는 조국에 간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꿈에서 조국을 그려 본다. 곳곳이 아름다운 산, 맑은 물, 흐르는 시내, 그 곳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즐기는 생활들, 오늘도 나는 그리운 고향의 꿈을 꾼다.

아! 아름다운 조국의 강산이여!
그 우에 휘날리는 공화국 기'발이여!
영원히 아름다우리라!
내 어디서나 언제나 너를 위하여 살리라!

☆일본 도교 조선인 제 3 초급 학교 추기 대 운동회☆

소년들의 생활

—작 문—

우리는 조선의 어린이다

일본 도교 제 10 초급 학교
제 6 학년 선 우

우리 학교는 작지만 슬기로운 우리 동무들의 마음은 크다.

일본 학교 동무들은 우리를 보고 《죠센진, 죠센진》하고 비웃는다. 그렇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우리는 조선 사람임을 무한히 자랑한다. 그러나 너희들 (일본 애들)이 생각하는 조선 사람과는 다르다. 너희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모르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자랑하던 미 제국주의자들을 거꾸러뜨린 영웅 조선 인민의 아들딸들이다.

보아라! 영웅 나라 조선을!

무너진 재더 우에 찬란히 서가는 공장과 학교와 거리거리들!

들으라! 영웅 나라 조선의 건설의 마치 소리를!

우리는 자랑한다. 조선 사람임을!
우리는 자랑한다. 작은 우리 학교를!
우리는 자랑한다. 영웅 조선의 어린이 임을!

지원군 관을 찾아서

↑ 휴식의 한때 (인민군대와 지원군)
← 황 계광 영웅의 반신 석고상

본사 기자 박 정렬

오늘 의로운 국제주의 전사들인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은 가지가지의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 땅에 남기고 고국으로 돌아 가고 있다.

피로써 우리 나라를 도와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심 성의로 도와 준 위대한 중국 형제들의 은공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노래로 길이길이 전해질 것이다.

오늘도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의 지원군 관은 여느 때와 같이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으로 들끓는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거리고 있다.

우리들이 영웅실의 한 방에 들어 섰을 때 많은 소년단원들이 6억의 중국 인민이 낳은 마뜨로쏘브 황 계광 특급 영웅의 반신 석고상을 둘러 싸고 해설자 아저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 조선 인민들의 가장 어려웠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의 기치 높이 들고 우리들을 피로써 도와 준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 특히 중국 인민 지원군 전투 영웅들의 사진과 용감한 투쟁기들은 우리의 가슴을 높뛰게 하였다.

많은 사진 가운데서 우리는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양 근사 특급 영웅, 구 소운 1급 영웅들의 이름도 찾아 내였다.

《중국의 안전을 위하여, 조선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침략자 미제를 용감히 쳐부시자!》 지원군 아저씨들의 한결 같은 이 웨침을 듣는 듯 우리는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다음 방에 발을 옮겼다.

먼저 우리들은 벽에 걸린 사진과 유화들에서 중국 인민들의 아들딸들이 조선 전선을 열렬히 탄원하는 모습과 압록강을 건너 서는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의 성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우리들은 해설자 아저씨를 따라 개천 전투와 상감령 전투의 사판 앞으로 갔다.

영웅의 고지 상감령—이 산마루와 함께 우리는 수많은 영웅적인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의 위훈을 기억하고 있다. 불을 뿜는 적 화구를 자기의 가슴으로 틀어막아 전우들의 전진을 보장케 한 황 계광 특급 영웅은 전우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웨쳤다.

《사랑하는 조선 그것이 어찌 내 고향 내 조국과 다르랴, 비록 적탄은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도 조국과 또 조선의 형제들을 빼앗을 수 없다.》

해설자 아저씨는 사판의 전기 장치까지 써가며 개천 전투와 상감령 전투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실지로 눈 앞에서 이 전투들을 보는 것만 같은 우리들은 오래'동안 사판 앞에서 움직일 줄 몰랐다.

두개 중대로 적 6만 여 명의 병력을 물리친 영웅적인 상감령 전투를 비롯한 개천, 광전리, 금성 전투,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불멸의 공훈을 세운 지원군 아저씨들의 용감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소년단원들과 함께 우리는 연신 감탄하며 지원군 아저씨들이 전투에서 남긴 위훈들을 빠짐없이 수첩에 써 넣었다.

수송 사업을 위한 투쟁에서도 지원군 아저씨들은 밤과 낮을 헤아리지 않았다.

다음에 우리들은 수많은 사진 앞에서 지원군 아저씨들이 우리 후방을 원호해 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금 감사를 드렸다.

지원군 아저씨들은 전투를 하고 난 짬짬을 타서 부근 농민들의 파종과 추수 사업을 도왔으며 아껴서 남긴 자기들의 식량으로 전재민들을 원호해 주었다. 또한 그들은 미제 공중 비적들의 폭격에서 중상을 입은 늙은이들과 어린애들을 친 부모 동생처럼 치료해 주었다.

↑ 상감령 전투

적들의 소이탄에 마을과 거리가 불 속에 싸였을 때도 지원군 아저씨들은 서슴치 않고 그 속을 뚫고 들어 가서 조선의 어머니와 갓난 애기들을 구원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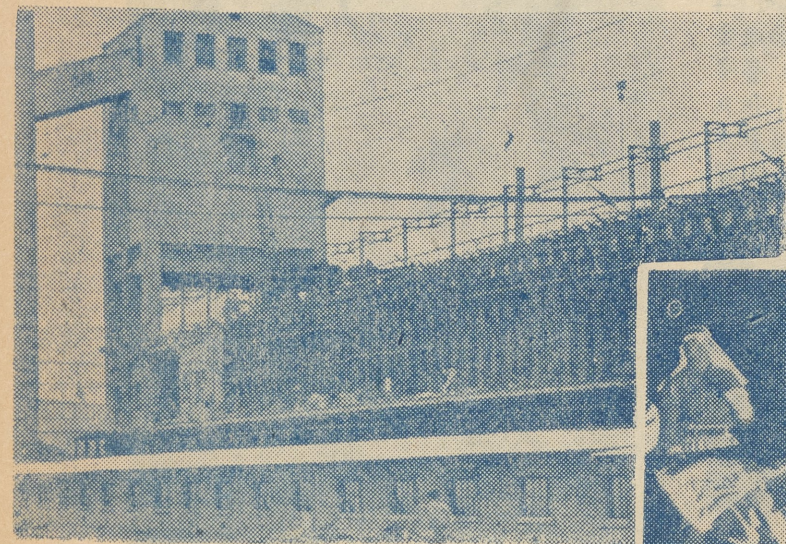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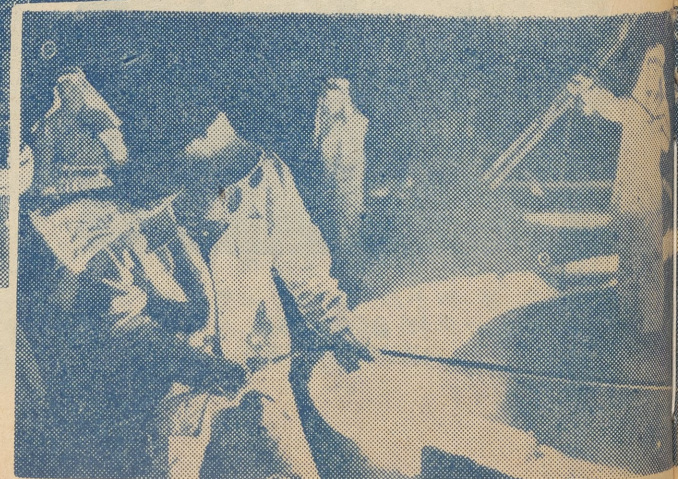
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들인가!

최 영 동무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 밖에 없는 귀중한 목숨을 바친 국제주의 렬사 라 성교 아저씨와 사 원후 아저씨를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정전 후에도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은 도시와 농촌에서 공장과 학교들을 지어 주었으며 관개 공사들을 도와 주었다. 6억 중국 인민들은 그 후에도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도와 8만 억원이라는 실로 많은 원조를 주었다.

이처럼 지원군 아저씨들이 우리 조국 땅에 남긴 가지가지의 숭고한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우리 강산과 함께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지원군 관을 나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위대한 중국 인민들에 대한 친선의 정으로 가득 찼다.

국제주의 렬사 (유화)→

사회주의 건설에서 또하나의 자랑찬 승리

새로 건설된 흥남 질안 공장과 황해 제철소의 용광로와 해탄로— 이는 조선 로동당의 부름을 따라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로동 계급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진 위대한 창조물이다.

공화국 전체 소년단원들은 흥남 질안 공장의 건설자들과 황해 제철소 용광로, 해탄로 건설자들에게, 그를 협조한 공장 아저씨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웅장한 용광로의 전경

← 황해 제철소 제1호 용광로와 해탄로

이 웅대한 건물이 황해 제철소의 용광로와 해탄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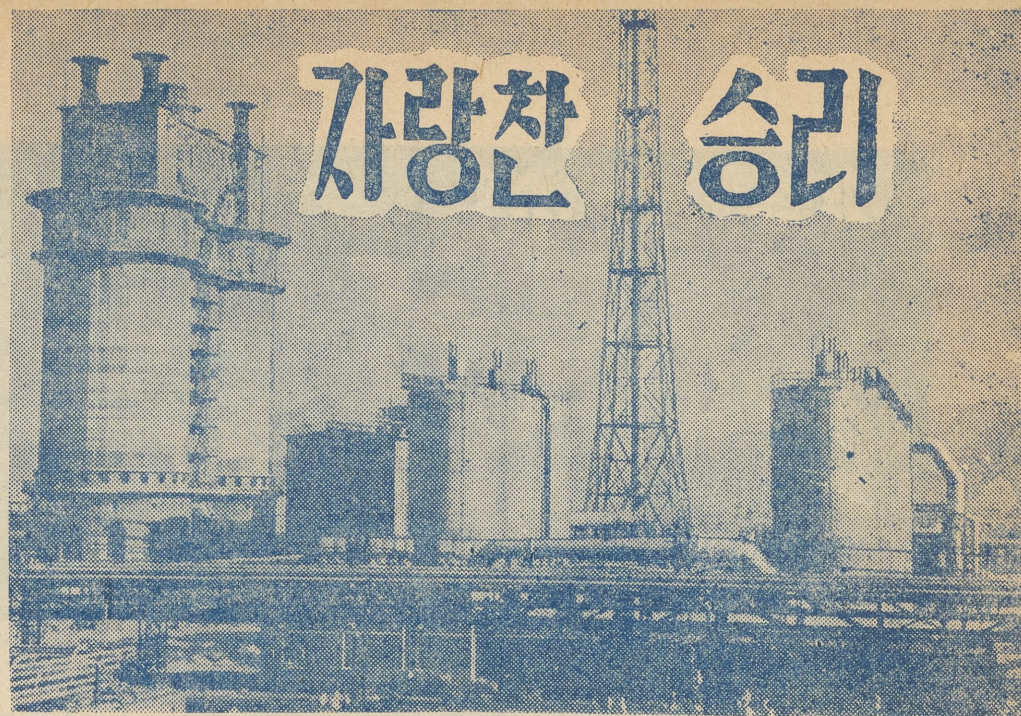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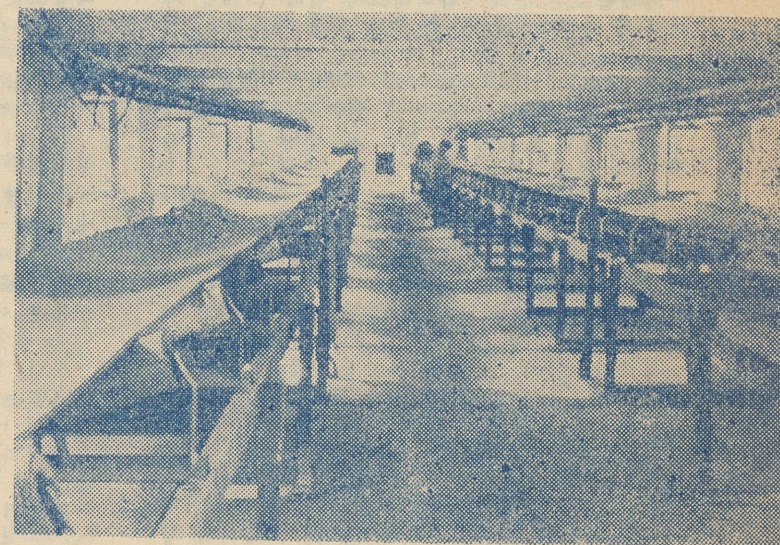
이 로들은 설계로부터 기계 설비, 제작 시공에 이르기까지 우리 로동자들과 기술자 아저씨들의 손으로 불과 일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건설된 것이다.

4월 30일에 조업을 시작한 이 용광로는 선철을 일년 동안에 25만 톤까지 생산하며 해탄로는 30만 톤의 꼭쓰를 생산하게 된다. 이 수'자는 과거의 것보다 생산 능력이 실로 2배 이상 되는 것이다.

흥남 질안 공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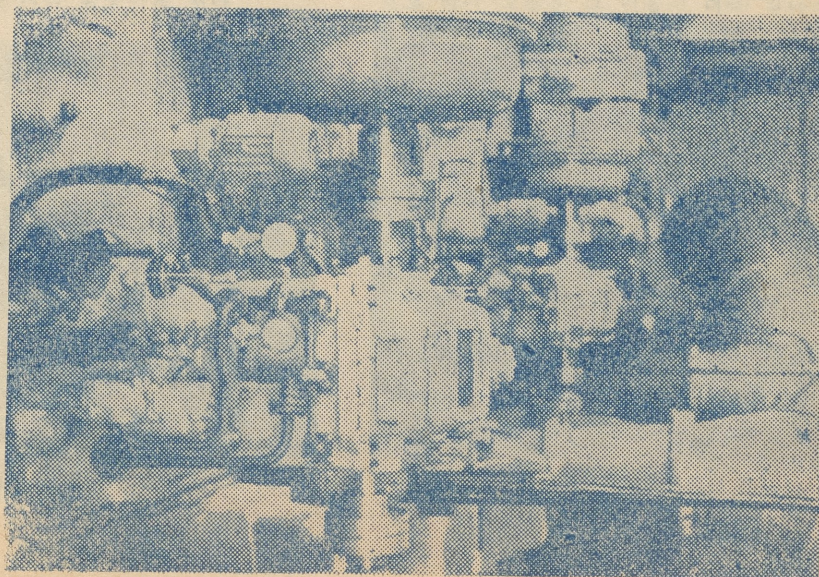
질안 비료가 싸락눈처럼 쏟아지는 이 공장이 바로 흥남 질안 공장이다.

4월 20일에 조업을 시작한 이 공장은 쏘련의 물질적, 기술적 원조와 로동자 아저씨들의 영웅적 로력으로 2 년이란 짧은 기간에 새로 건설되였다.

이 공장에서는 류안 비료보다 1.7배나 효능을 가진 질안 비료를 한해 동안에 13만 6천 톤을 생산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농촌에서는 더 많은 쌀을 생산하게 된다.

↑흥남 질안 공장

내부 시설은 모두가 최신식 자동화로 되였다→

↑해탄로

첫 쇠'물이 쏟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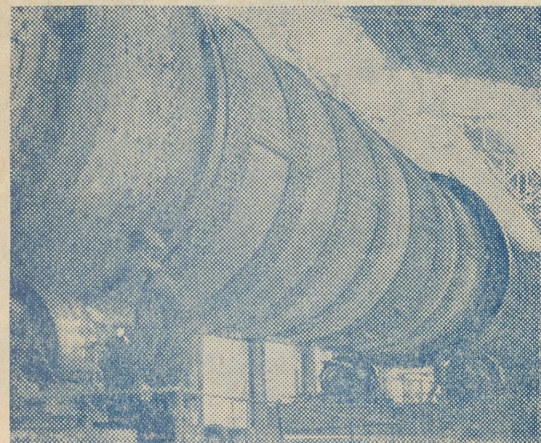
송풍실(바람을 보내는곳)의 일부→

글 김 병익

황해남도는 본래 황해북도와 함께 1954년 가을에 황해도에서 갈라져 새로 생긴 도이다.

황해남도는 북 쪽은 대동강에 의하여 평안남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동 쪽은 재령강, 멸악 산맥 및 례성강의 지류—루천에 의하여 황해북도와 접하고 있으며 서 쪽과 남 쪽은 황해에 림하고 있다.

항상 나라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는 당과 정부는 황해도를 주로 곡식이 많이 나는 평야 지대인 황해남도와, 지하 자원이 풍부한 산업 지대인 황해북도로 나누어 이 지역의 경제 문화가 각각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해남도에는 신 해방 지구인 배천, 연안, 청단, 강령, 옹진 등의 다섯 개 군이 포함되였다.

황해남도는 비교적 평지가 많으며 산지도 그리 높지 않아 농사와 과수업에 아주 적당한 곳이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는 이 지역의 경제를 여러 모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갖 배려를 돌리고 있다. 그리하여 황해남도는 다른 모든 도와 함께 인민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날마다 향상되여 가고 있다.

황해남도에는 공화국 북반부의 쌀광들인 재령 평야와 연백 평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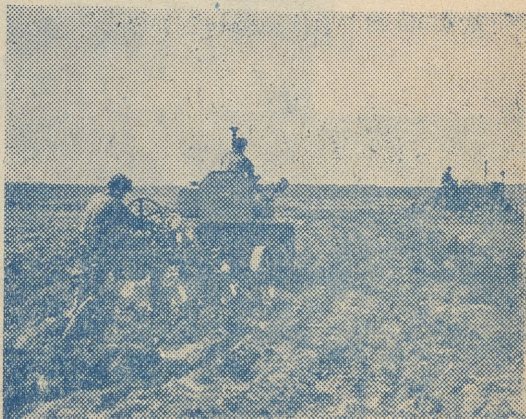
그리하여 황해남도는 평안남도와 함께 알곡 생산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황해남도에서 농촌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는 벌써 전체 농가 호수의 97.2%(1957년 12월 현재)로 장성 발전하였다. 알곡 생산은 해마다 늘어 농민들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여 도내 농민들의 생활 수준은 이제는 벌써 중농의 수준에 이르렀다. 농촌은 더욱 문화적으로 그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

지난 해 황해남도에서는 62 만 톤의 알곡을 생산했는데 금년에는 75만 톤을 생산할 것을 결의해 나섰다.

그리하여 지난 해는 농업 협동 조합원들 한 집에 평균 1.792 톤의 알곡과 13,000원의 현금이 차례졌다면 금년에는 한 집에 2.4톤의 알곡과 33,000원의 현금이 차례지게 될 것이다.

해주 쎄멘트 공장의 소성로.

신 해방 지구인 청단벌을 갈고 있는 뜨락또르.

이렇게 되면 도내 농민들의 생활 수준은 지난해 12월에 있은 황해남도 농업 협동 조합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수상님의 말씀과 같이 모두 부유한 중농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황해남도는 공예 작물인 면화의 적지이므로 제 1 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의 면화 생산을 12 배로 늘쿠는 데 있어서도 역시 평남도와 함께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과수업은 해주의 배, 복숭아, 송화, 은률, 신천, 안악군의 사과, 옹진군의 감 등이 유명하다. 이 지역들에는 큰 국영 과수 농장들이 있고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도 과수원들을 널리 경영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사과, 배는 그 질이 좋아 해마다 외국에도 많이 수출되고 있다.

또한 해안 연선 낮은 산 지대들에는 사과, 배, 복숭아, 감 등의 적지이므로 과수 면적이 해마다 늘어 가고 있다.

앞으로 황해남도의 과수업은 알곡 생산과 함께 그 발전 전망이 크다.

황해남도는 멸악 산맥과 구월 산맥들의 주변 산지들에 갈철광과 적철광이 많이 매장되여 있어 우리 나라의 중요한 철광 산지의 하나로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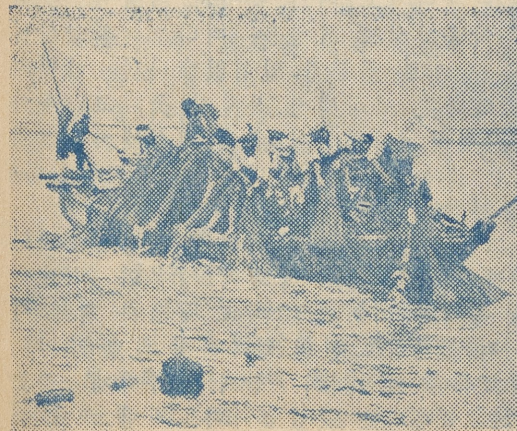
재령군의 하성 광산, 재령 광산을 비롯하여 은률군의 은률 광산 등은 모두 중요한 철광들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철광석들은 모두 황해 제철소에 운반되여 제철된다.

황해남도에는 또한 금, 은, 동 등 유색 금속도 적지 않게 매장되여 있다.

그 중에서 장연군의 락연 광산, 옹진군의 옹진 광산 등이 크다.

이 밖에도 황해남도 도 소재지 해주시에는 건재 공업, 화학 공업, 금속 가공 공업, 식료품 공업 등의 공장들이 있다.

그 중 해주 쎄멘트 공장은 우리 나라 건재 공업에서 주요한 자리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 공장은 더욱 확장되게 된다.

이 공장에서 많이 생산되는 쎄멘트를 공장과 농촌에 제때에 나르며 농촌에다 비료, 기계, 생활 필수품 등 각종 상품들을 날라 이 지역 인민 경제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금 신원군의 하성으로부터 해주까지의 사이에는 광궤(넓은 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본래는 좁은 철도가 놓여 있었다)

황해남도 해안에는 해주, 옹진, 몽금포 등 좋은 항구들과 령해에 큰 어장들이 있어 조구, 김, 굴, 새우, 바스래기 등의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옹진 앞의 룡호도와 해주 앞의 연평도 근해는 고래 잡이와 조기 잡이의 큰 어장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아직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어장들을 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 수산업 발전에 장애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조국이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도내 항구들과 어장들이 우리 나라 수산업과 운수업 발전에서도 더욱 큰 역할을 놀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황해남도에는 경치가 마치 강원도 금강산과 같다 하여 황해 금강이라고 불리우는 장수산을 비롯하여, 명산인 구월산, 그리고 신천, 송화, 배천, 평천, 옹진 등의 온천들과 서해안 제 1의 해수욕장인 구미포와, 고구려 고분인 안악 고분, 임진 조국 전쟁 때 왜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연안성터 등 수많은 아름다운 명승, 고적지들이 있다. 지난 날 왜정 때는 이 모든 명승, 고적지들이 일본놈들과 지주 자본가들, 돈 많고 권세 있는 놈들의 놀이터였다면 오늘은 당과 정부의 배려하에 근로자들의 즐거운 휴식터로 되고 있다.

더우기 구월산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가장 어려운 일시적 후퇴 시기 조국을 사랑하며 원쑤 미제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에 불타는 도내 애국적 인민들의 영용한 빨찌산 투쟁의 근거지였으므로 하여 오늘은 그 이름이 더욱 빛나고 있다.

물'고기도 많이 잡힌다.

황해남도는 과수업도 유명하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평양 제약 공장

포장공 리 덕재

나는 평양 제약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약이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는 용해공들, 천길 땅 속에서 탄을 캐는 탄부들, 그리고 사랑하는 소년단원 동무들의 건강을 위해 쓰인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기쁨과 자랑을 느낍니다.

영예로운 사회주의 건설자로서의 오늘의 이 행복, 이 감격, 이 영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지난 날의 생활을 도리켜 보군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일제 때 강원도 안변 서곡 광산에서 광부로 로동했습니다.

일제 때 광부들의 생활이란 말이 아니였습니다. 나는 그 때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이 무시무시한 생활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수시로 갱내 동발이 끊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습니다. 일본 순사놈들과 광산의 일본놈들은 무턱대고 로동자들을 때리고 차고 감옥에 집어 넣군 했습니다.

일제 때 광부들의 생활에 대해 더 이야기 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일본놈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바로 해방이 되는 날이였습니다. 이 날도 아버지는 일본놈들이 내모는 바람에 광산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광산은 땅에서 수백 척이나 깊은 수직갱이였습니다.

이 날 일본놈들은 로동자들을 광산 굴 속에 몰아 넣자 곧 굴 아궁이를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시켰던 것입니다.

산'골짜기를 뒤엎는 듯한 요란한 폭발소리에 놀래인 광산 마을 사람들이 급히 모여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래였습니다. 굴이 무너지는 바람에 굴 속의 사람들이 묻혀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날 많은 로동자들이 파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때에 아버지는 간신히 돌'뎅이 속을 헤치고 밖으로 기여 나오기는 했지만 머리가 깨여지고 뼈가 부서져 며칠이 못되여 억울하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원통한 일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한 세상에서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이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보고 죽으니 나는 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나는 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품 속에서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아무 걱정 근심도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도 오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때 미 제국주의 놈들은 우리 어머니마저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와 동생은 고아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로동당은 그 어려운 전쟁 시기에도 우리를 따뜻한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나는 녕변 초등 학원에서 공부하게 되였습니다.

어머니 품 속이면 그렇게 따뜻하겠습니까. 입는 것, 먹는 것, 잠자는 것까지 당은 어머니마냥 돌보아 주었으며 우리를 고이 키워 주었습니다.

나는 당의 따뜻한 품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5년 간 계속 최우등을 했습니다. 그 때 나는 소년단 대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바라던 민청원이 되기 위해 꾸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그처럼 따뜻이 돌보아 준 당의 두터운 배려에 보답하여야겠다고 마음 다지고 그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내가 초등 학원을 졸업한 해 전쟁은 끝났습니다. 당은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모든 것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 리 덕재 동무 ☆

이러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는 민청에 가맹했고 그 후 곧 새 희망을 품고 일터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 많은 곤난이 뒤따르군 했습니다. 다른 동무들은 110~120%씩 계획을 넘쳐 하는데 나는 쉴 새 없이 일해도 하루 겨우 80% 밖에 못하였습니다. 마음은 안달았지만 기술이 없는 나에게 남을 따라 가기는 퍽 곤난했습니다.

로동당은 나에게 곤난 앞에 주저 앉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공장 당 위원회는 나를 위해 기능공을 배치해 주었고 내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편리와 배려를 돌려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나는 남보다 한 시간 전에 일터에 나와 작업 준비를 갖추었고 점심 시간의 남은 시간도 리용하면서 일에 숙련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나는 밤이면 꼭 교대로 나온 언니들을 따라 다니며 기술을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과 민청의 방조에 의해 공장에 들어 온지 1개월 만에 4급 공이 되였으며 자기 앞에 맡겨진 일을 능히 해 낼 수 있게 되였습니다.

당을 위해 더 훌륭히 일하려는 나의 앞에는 두려울 것이라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12월 전원 회의 결정이 나오자 그를 받들고 청년 브리가다, 청년 분조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전식 풀판, 계산기, 소형 작업대 등 창의 고안으로 작업 능률을 높였습니다. 나는 또한 《절약하여 증산하자!》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약병 바닥에 까는 솜을 절약하는 운동, 유리병 파손률을 저하시키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하여 솜을 50% 절약했고 유리병 파손률을 50% 저하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계획을 130%로 넘쳐 완수했습니다.

나는 올해 스무살이지만 작년에는 벌써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되였습니다. 나는 지난 3월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날의 감격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대회에서 오늘과 같이 영예로운 로동당원으로 자래워 준 당의 두터운 사랑과 따뜻한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힘써 일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나는 1 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꼭 기수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것은 곧 당과 조국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약속을 꼭 실천하여 나를 키워 준 어머니—당을 위하여 더 힘껏 일할 결심입니다.

철식이의 결심

글 한 창수
그림 오 영복

(1). 김 철식은 올해 열 세 살, 강원도(남조선) 주문진 <국민 학교> 5학년 생이다. 일찌기 아버지를 여윈 철식이는 50줄에 들어선 어머니와 스물 하나에 나는 누나와 함께산다. 어머니와 누나가 바다 일을 하여 사는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달마다 《수업료》를 물 때가 오면 어린 철식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군 한다.

오늘 아침도 철식이는 근심어린 얼굴을 떨군 채 학교에 간다

(2). 첫 시간은 《수신》 시간이다. 아이들을 잘 때리고 팩팩 소리를 잘 질러 《게사니》라는 별명을 가진 교장은 교단에 올라 서자 《수업료를 가져 온 아이들은 손을 들라!》고 고함을 친다. 철식이의 가슴은 철렁 내려 앉는 것만 같았다. 교실 안은 쥐죽은 듯 고요하다. 손을 드는 아이는 돈 있는 집 몇몇 아이뿐이다. 거의 모두가 <수업료>를 못가져 온 눈치였으나 아이들은 선생이 무서워 어쩔 줄을 모르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3). 이튿날 아침이였다. 금테 안경에 키가 아래 우 몽땅 자른 듯이 작달막한 교장은 이날도 교실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에! 우리 학교 학생 460 명 중 이날 <수업료>를 가져 온 학생은 80명 뿐이요. 에! <수업료>를 받지 않고는 공부를 계속할 수 없소. 이것은 <리 승만 대통령>의 지시요. 그러니 오늘부터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에 나올 수 없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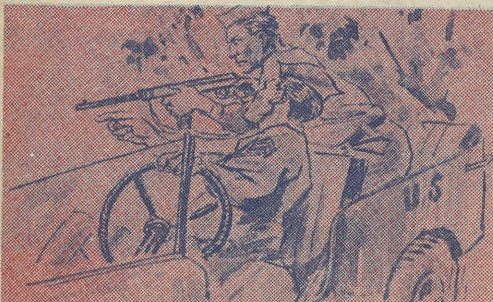
(4). 이리하여 《수업료》를 물지 못한 학생들은 이틀 동안 공부를 그만 두고 《어장》에 나가 일하게 되였다. 배에 잡아 실은 고기를 가마니에 넣어 그것을 창고까지 날라 오는 힘든 일이였다.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이런 일을 아이들이 하자니 여간만 힘든 것이 아니였다. 이렇게 철식이와 그의 동무들은 집이 가난하여 《수업료》를 못낸 《죄》로 이틀 동안 고된 로동을 하였다.

(5). 변변히 먹지도 못하는 데다 이틀이나 일에 치운 철식이는 그 날 밤부터 자리에 눕게 되였다. 머리가 쑤셔 오고 온 몸이 떨려와 꼼짝할 수가 없었다. 부두에서 저녁 늦게 돌아 온 어머니와 누나는 철식이가 몹시 앓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하였다. 아버지의 제사'날에 쓰려고 꿍쳐 둔 입쌀로 미음을 쑸으나 철식이는 한 모금도 먹지 못했다. 밤은 깊어 가는데 멀리 바다에서 고동 소리가 《삑——》하고 들려 왔다.

(6). 사흘이 가도 철식이는 일어 나지 못했다. 먹기보다 굶기가 일수인 이런 살림살이지만 철식이를 믿고 살아 가는 어머니는 근심이 앞서서 일하려도 못 나갔다. 일 나간 누나도 철식이 걱정 때문에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동생이 앓아 누워도 약 한첩 쓰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누나의 마음은 저절로 슬퍼지기만 했다. 《래일에는 외가'집에라도 가 봐야지!…》 누나는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였다.

(7). 철식이네 외가'집은 주문진에서 20리 가량 떨어진 촌에 있다. 누나는 아침 일찌기 집을 나섰다. 외가'집 마을에 가면 혹시 약 값이나 구할가 해서이다.

낮은 고개턱을 두 개나 넘어 신작로를 한참 걸어 갔을 때이다. 벼란간 우렁우렁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 보니 미군놈의 쨒차가 바람을 일쿠며 달려 오고 있었다. 쨒차에는 보기만 해도 머리칼이 일어서는 미군놈 두 놈이 타고 있었다.

(8). 깊은 산'속에서 범을 만난 듯 흠칫 놀란 누나는 옆길을 빠져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군놈들은 차를 세우고 고함 소리를 질렀다. 얼굴을 돌려 보았더니 차에서 내린 두 놈이 징글맞게 웃으면서 손'짓을 한다. 가까이에 오라는 것이다. 누나는 겁이 와락 났다.

조선 사람을 짐승마치도 여기지 않는 미군놈들의 행패에 대하여 누나는 이미 잘 알고 있는 터였다.

(9). 누나가 도망치는 눈치를 보자 그 놈들은 《휘—ㄱ》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쫓아 왔다. 누나는 두 주먹을 부르쥔 채 밭'둑길로 마구 뛰였다. 그 때이다. 《탕—탕—》 총 소리가 울렸다. 행길을 걸어 가던 사람들이 총 소리에 놀라 뛰여 왔을 때는 이미 누나의 몸은 싸늘해 있었다.

짐승보다 더한 미군놈 두 놈은 무엇이라고 중얼 대더니 껄껄 웃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10). 누나가 집을 떠난 후 철식이는 꿍꿍 앓으면서도 학교 생각이 나서 산수 책을 펴 들었다. 그러자 철식이는 공부할 생각보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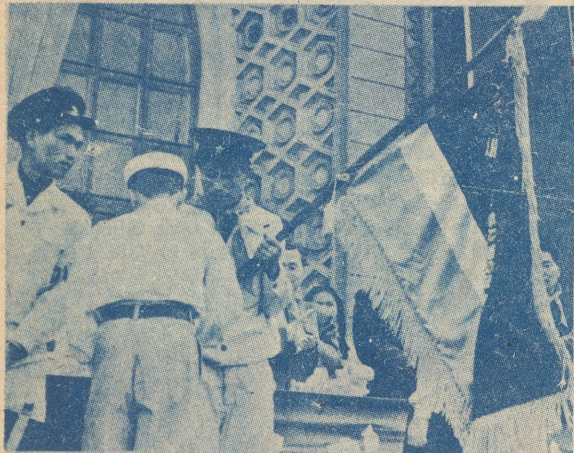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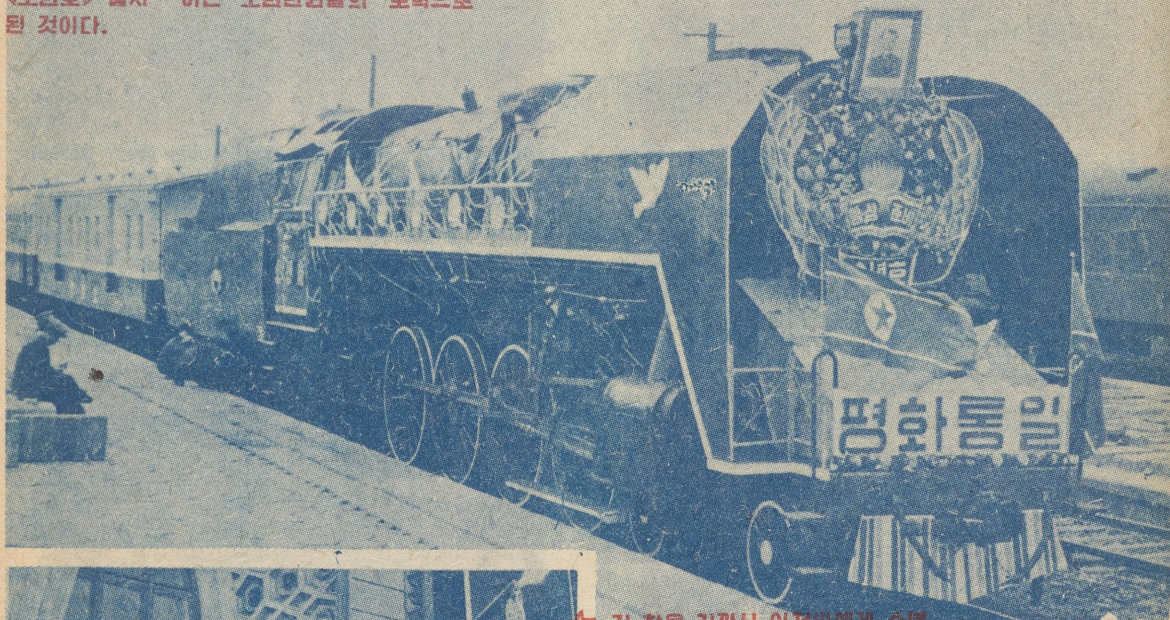
《수업료》를 못내여 학교에서 쫓겨 난 경석이의 얼굴이 눈 앞에 어른거렸다. 새 학기에 들어 와서만도 벌써 열 명 넘는 아이들이 《수업료》 때문에 퇴학을 당했다. 《나도 학교에서 쫓겨나면 어떡허나…》

(11). 미군놈에게 억울하게 죽은 누나의 시체를 안고 낯모르는 사람들이 철식이네 집에 달려 온 것은 그날 오정 때였다. 누나의 허리춤에서 찾은 《도민증》을 보고 찾아 온 것이다.

왁짝 고아대는 소리에 황겁히 달려 나간 어머니는 누나의 시체를 보자 그만 두 주먹으로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 뒤미쳐 달려 나온 철식이는 너무도 뜻밖의 일에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와락 누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12). 낯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누나가 당한 일을 듣고 난 철식이와 어머니는 이를 뿌드득뿌드득 갈았다. 《이놈들! 옥분이를 살려 내라!》고 소리치는 어머니는 금방 미군놈들의 덜미라도 잡아 나꾸챌 듯 악에 치바쳐 있었다. 철식이도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소리 질렀다. 《미군놈 새끼들! 두고 보자! 네놈들이 그냥 지낼 줄 아느냐! 원쑤는 내가 갚겠다.》 철식이의 어린 가슴에는 어서 자라 누나의 원쑤를 갚을 크나큰 결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소년호 렬차

《소년호》 렬차— 이는 소년단원들의 로력으로 된 것이다.

⇦ 김 창운 기관사 아저씨에게 소년단 기'발을 드리는 소년단원들.

《소년호》 렬차가 달린다. 어린이들은 《와—》 하고 철도 연선으로 달려가 손을 흔든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성으로 이루워진 《소년호》 렬차를 교통 운수 부문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에게 기증하던 4월 29일을 회상한다.

그 날은 정녕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였다. 《소년호》 렬차 기증 전국 소년단 련합 모임에 참가한 4천 여 명의 소년단원들과 모임을 축하하여 오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저씨들은 모두 흥분과 기쁨 속에서 이 날을 맞이했다.

특히 이 모임을 축하하여 홍 명희 부수상,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하 앙천 과학 및 학교 교육 부장, 김 회일 교통상, 조선 로동당 평양시 위원회 리 송운 위원장, 민청 중앙 위원회 김 기수, 강 구영 부위원장들과 기타 관계 인사들이 참가하시였다.

소년단원들을 태운 《소년호》 렬차가 출발의 기적을 힘차게 울리며 푸레트홈에서 천천히 떠날 때 군중들은 감격의 함성을 올렸다. 렬차를 탄 소년단원들도, 푸레트홈에서 환송하는 소년단원들도 꽃다발과 기'발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다.

어찌 기쁘지 않으랴! 한 쪼각의 쇠, 한 장의 휴지, 한 알의 피마주와 해바라기를 모으고 또 모은 것이 이처럼 훌륭한 기관차가 되여 도시와 마을로, 건설장으로 달리게 되였으니—

렬차 바곤 마다에서는 소년단원들의 웃음 소리와 이야기로 그칠줄 모르는데 이 곳 저 곳에서는 감격적인 상봉이 벌어졌다.

함북 화대군 제 1 중학교 김 청원이는 림목 종자를 모으던 경험을, 평남 온천 제 1 중학교 윤 정남이는 피마주, 해바라기를 가꾸던 경험을, 자강도 동무들은 도토리를 모으던 이야기들을 주고 받기에 신이 났다.

이 곳 저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더 잘하여 더 훌륭히 나라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들끓었다. 판문군 판문 고급 중학교 성 락법 동무도 같은 심정에 들먹이고 있었다.

그가 한때 남반부에서 쓰라린 생활을 겪던 이야기를 하면서 불행한 남반부 어린이들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오늘과 같은 행복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을 때 모든 동무들도 같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렇다, 그것은 성 락법 동무 뿐만 아니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념원인 것이다. 그러기에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소년호》 렬차 앞 머리에는 《평화 통일》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는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은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잘하여 나라를 도와 나서겠다는 굳은 결의로 충만되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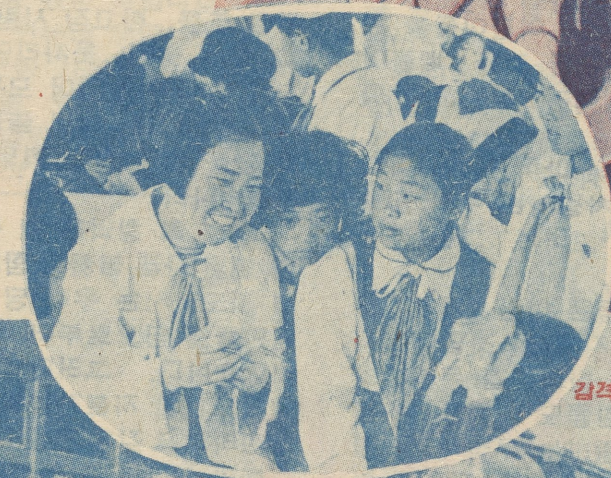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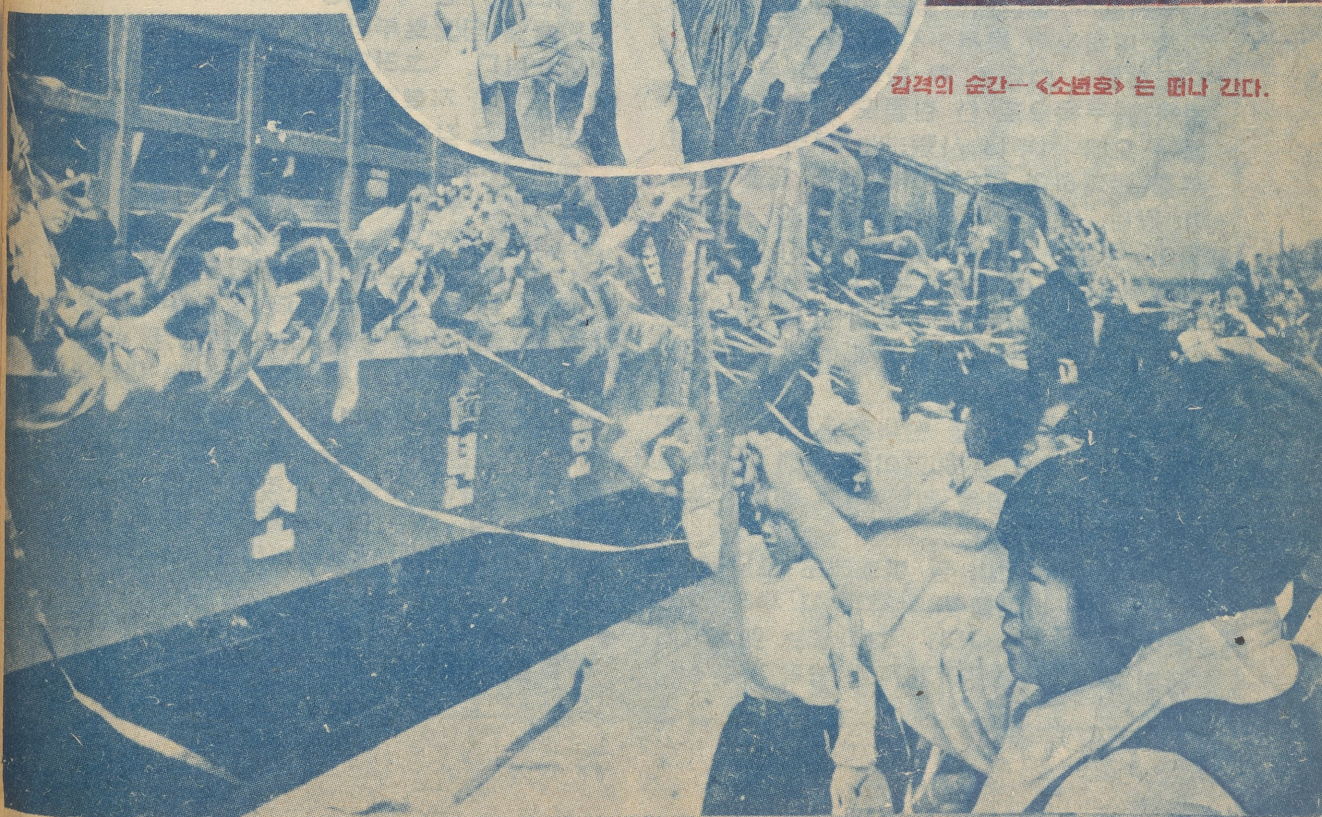
《소년호》 렬차—이것은 소년단원들의 첫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몇 해가 지나 보라! 그들은 오늘 보다 더 훌륭한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말 것이다.

글 본사 기자 최 화규
사진 리 종록 활영

—◇—

《소년호》 기관사 아저씨와 소년단원들.

《앞으로 우리는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더 잘 할테야》 하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함북 온성 7중 김 정희 동무.

감격의 순간— 《소년호》 는 떠나 간다.

당과 인민의 단결된 힘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허물 수 없다!

우리들— 소년단원들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귀중하고 훌륭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조선 로동당을 열렬히 사랑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로동당— 이는 우리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당을 반대하거나 또는 헐어 보려는 그런 놈들은 우리의 원쑤입니다.

우리들— 소년단원들은 이런 놈들을 끝까지 미워하며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무들! 그런데 최 창익, 김 두봉, 박 창옥을 두목으로 한 한줌도 되지 않는 놈들은 오래 전부터 사랑하는 우리 당과 정부를 반대하여 별아별 악독한 짓을 다하여 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악당놈들이 저질은 악독한 짓을 똑똑히 알며 그 놈들을 더욱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놈들이 어떻게 우리 당과 정부를 반대했습니까? 이제 그것을 알아 보기로 합시다.

우리 당과 혁명을 반대해 나선 두목인 최 창익이란 놈은 30년이란 오랜 세월을 두고 당과 혁명을 팔아 먹기 위해 날쳐 온 그런 놈입니다.

이 놈은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그냥 더럽고 악독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우리 당에 기여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옛날부터 저이끼리 패를 무어가지고 쑥덕대며 장난치던 놈들, 한고장 사람들이라고 서로 싸고 도는 놈들, 웃자리만 탐내는 놈들을 자기 손아귀에 끌어 모우기에 날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놈들과 패를 무어 우리 당을 반대하며 혁명을 팔아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최 창익은 김 두봉, 박 창옥 등의 몇몇 나쁜 놈들과 함께 김 일성 원수님이 지도하시는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뭉친 인민들을 당으로부터 떼 내여 보려고 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놈들은 인민들에게 지주, 자본가놈들의 악독한 사상을 퍼뜨리려고 갖은 짓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놈들은 로동당의 가리킴을 받들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땀으로 이루워 놓은 귀중하고도 훌륭한 성과들을 헐어 보려고 날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민들이 더 잘 살며 더 행복해지도록 모든 것을 다하여 항상 힘쓰고 있는 우리 당의 훌륭한 일들에 대하여 뒤에서 쑥덕거렸습니다.

더우기 간악한 것은 최 창익, 박 창옥 등 이 악독한 놈들은 우리의 철천지 원쑤인 리 승만 매국 역도놈들을 반대해 싸우는 인민들의 불타는 적개심을 꺼버리려고까지 한 그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당과 정부를 반대하는 놈들을 더욱 부추겨 세우며 심지어는 오래 전에 이 땅에서 내쫓은 지주, 자본가놈들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놈들까지도 묶어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데 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놈들은 또한 우리 당과 쏘련을 비롯한 형제 당들과의 굳게 잡은 국제주의 손'길을 끊어 보려고 갖은 짓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나라를 쏘련을 비롯한 형제 나라로부터 떼내여 우리들을 또 다시 어두운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날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간악하고 악착스런 놈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놈들은 심지어 원쑤놈들과 손을 잡는데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놈들은 원쑤놈들과 손을 잡고서까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당과 정부를 뒤엎으려는 무서운 준비들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 놈들은 오래 전부터 뒤에 숨어서 나쁜 놈들을 끌어 모아 가지고 시위를 하며 무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키며 훌륭한 간부들을 해하려는 따위의 흉칙스럽고도 간악한 준비들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최 창익, 김 두봉, 박 창옥 등을 두목으로 한 놈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높은 자리를 차지해 보려는 더럽기 짝이 없는 욕심으로부터 우리 당과 정부에서 령도권을 잡아 보려고 한 그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림도 없는 짓입니다.

보십시요! 오늘 이 놈들은 당과 인민의 단결된 힘 앞에 자기들의 더러운 정체를 낱낱이 들어 내 놓고야 말았습니다.

동무들! 이 놈들이 제아무리 우리 당을 헐어 보려고 갖은 짓을 다 해 날쳤지만 결국은 우리 당과 인민의 단결된 힘 앞에 영영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이 지도하시는 우리 당과 그 주위에 굳게 뭉쳐진 인민들의 힘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소년단원들은 우리에게 더욱 큰 행복과 기쁨만을 안겨주는 우리 당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며 그 뒤를 따르기 위해 항상 배우며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페지스로마를 근절하기 위하여
우렁이, 골뱅이, 게, 가재를 박멸하자

페 지스로마는 《토질병》 이라고도 부르는 만성 전염병인데 그 유충들은 먼저 우렁이와 골뱅이, 다음엔 게와 가재 등에 기생하다가 사람에게 옮기여 병을 일으킨다.

이 병에 걸리면 쿨룩쿨룩 기침을 하며 검붉고 냄새나는 가래를 자주 뱉으면서 오랜 기간 만성으로 앓는다. 또한 페 지스로마가 뇌에 들어가서 기생하면 간질과 같은 증상도 일으키며 심한 경우에는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한다.

이렇게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페 지스로마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병을 전파하는 우렁이, 골뱅이, 게, 가재등을 먹지 말아야 하며 이것들을 철저히 잡아 없애야 한다. 이것들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계속 잡아 내는 방법과 내'물을 막고 바닥을 말리워 질식시키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강물도 그 상류에서 물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고 강'바닥이 마른 다음엔 그것을 메워 버려야 한다.

전체 소년단원들은 페 지스로마 병을 근절하고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시책을 받들고 우렁이, 골뱅이, 게, 가재 등의 박멸에 다 같이 힘써 나서자.

나는 소년단원이 되였다

함남 북청군 신북청 중학교 대
12분단 주 광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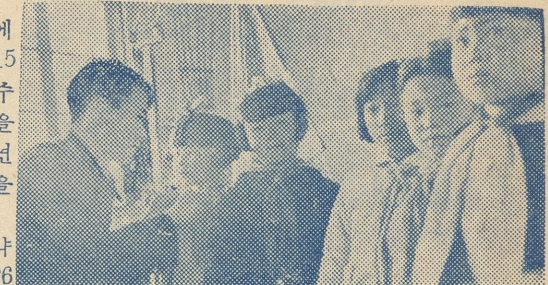
나는 언제나 붉은 넥타이를 매고 자랑스럽게 활개치며 다니는 소년단원들을 볼 때면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소년단원이 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학습에 꾸준하였고 집에 와서는 웃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린 동생을 사랑하면서 래일의 훌륭한 나라의 일'군으로 될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대에서는 《김 일성 원수님의 애국적 활동을 본받자》 라는 모임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이 모임 날에 나는 원하던 소년단에 입단했습니다.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붉은 넥타이를 매여 줄 때 나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나는 입단 후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를 실천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최우등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나는 소년단 생활을 잘하여 앞으로 훌륭한 민청원이 될 것을 마음 깊이 결심하고 있습니다.

소년단의 입단을 축하하여

우리 학교 대에서는 지난 4월 15일 김 일성 원수의 탄생 46 주년을 기념하면서 소년단 입단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입단 서약식에서는 모두 26명의 동무들이 입단하게 되였는데 그 중 17 명은 우리 분단 동무들이 였습니다.

우리는 이 17 명 동무들의 입단 준비를 위하여 벌써 오래 전부터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분단에서는 입단을 준비하는 동무들에게 소설 《만경대》와 《우리 나라 꽃봉오리》 등 재미나는 책들에서 읽은 내용을 이야기 해 주기도 하였고 김 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과 아동 혁명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를 앞으로 훌륭히 실행할 수 있는 마음 준비도 갖추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분단 지도원 선생님과 분단 열성자들이 맡아 하게 되였습니다.

한편 분단에서는 새로 입단하는 동무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파마 5개년 계획》 활동으로 진행되는 폐품 수집 사업을 더 열심히 진행하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들에서는 저마다 성의껏 꽃보라와 꽃묶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분단 동무들은 새로 입단하는 동무들을 축하하여 노래와 춤으로 훌륭한 연예도 발표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기다리던 모임 날 서약식이 시작되자 우리는 먼저 이 날 서약식을 축하하여 분단의 이름으로 만든 멋진 화환을 소년단 대렬 앞에 드리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단하는 동무들이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를 다진 후 소년단의 첫 경례를 했을 때 우리들은 그들을 축하하여 꽃보라를 뿌려 주었고 꽃묶음도 안겨 주었습니다.

서약식이 끝나고 대 기'발이 퇴장한 다음에는 곧 새로 입단한 동무들을 축하하는 분단별 연예가 발표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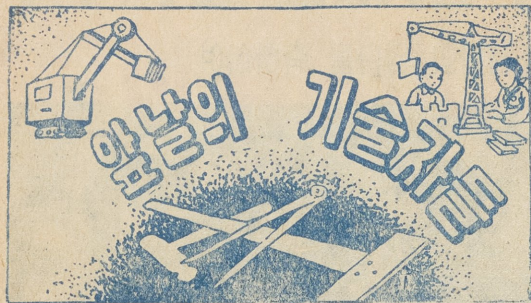
우리 분단에서는 오래'동안 준비한 합창시 《아름다운 우리 나라》와 무용 《선량한 토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래와 춤으로 오래오래 그들을 축하했습니다.

황주군 침촌 중학교 대
17 분단 위원장 리 공녀

《게 으 름 뱅 이 가 밥 상 에 는 먼 저 앉 는 다》

중학생이 어떻게 물을 긷겠니… 네가 길으렴

이럴 때엔 내가 형이니까

평양 제 4 중학교 류 광호 그림

—사리원 제 3 중 학교 대에서—

본사 기자 신 진 균

4월 14일 오후였다. 사리원 제 3 중 학교를 방문한 나는 이 학교 소년단 지도원 선생과 함께 공작실을 찾아 가 보았다.

우리가 공작실에 들어 섰을 때는 마침 이식삽을 만드는 공작 크루쇼크원들의 과외 작업이 한창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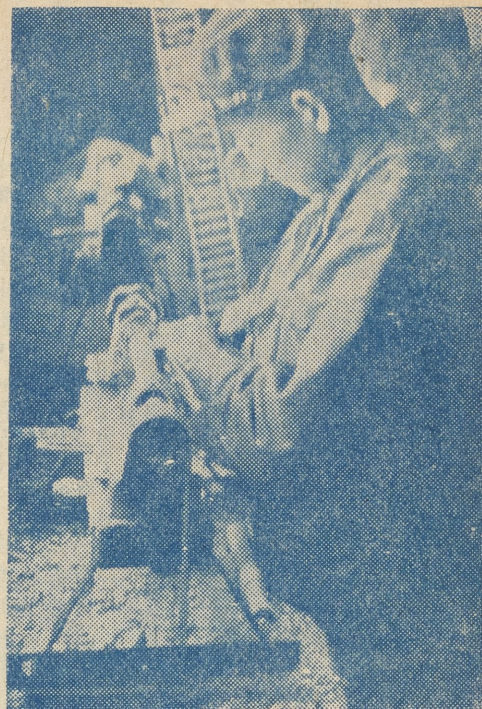
윙윙 돌아가는 모타들에 의하여 불반, 목선반, 그리고 구라인다며 제재기 등 가지 가지 기대들이 움직이는 공작실 안은 마치 자그마한 종합 공장 같기도 하였다. 나는 처음에 쇠 가는 소리와 나무 켜는 소리, 요란한 마치 소리에 정신이 얼떨떨해졌다.

그러나 이미 작업에 익숙해진 크루쇼크원들은 2 명 씩 패를 지어 침착하게 기대들을 다루며 저마다 능숙하게 작업을 해 나가고 있었다.

넓다란 철판에서 도면 대로 본뜨기 작업을 끝낸 동무들은 다시 불꽃 튕기는 구라인다에서 그를 보기 좋게 갈아 내고 다음엔 목선반에서 자루 할 나무를 깎아 맞추며 훌륭한 이식삽을 완성해 가는 것이였다.

나는 첫 공정으로부터 그들의 훌륭한 솜씨를 자세히 볼 생각으로 본뜨기 작업을 하는 동무들의 곁으로 다가 갔다.

작업에 열중한 그들은 도면을 따라 백묵을 그어 가며 열심히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였다. 그런데 철판이 고루롭지 못한 부분은 남기며 본 떠가는 연 석주 동무에게 전 관국 동무가 불쑥 이렇게 말하였다.

《넌 이 철판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건지 잘 모르는 모양이야.》

☆ 자기들이 만든 목선반기에서 ☆

———◇———

《그까짓 소린 그만 둬, 수집한 페품을 이만큼 리용해도 장하지 뭘 그래》하며 석주는 툭 내쏘듯 대'구하였다. 그러자 관국이는 어이 없는듯 석주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넌 〈절약하여 증산하자〉는 구호를 말로만 외웠어, 수집한 페품이라도 쓸모 있게 아껴 쓸줄 알아야 한다지 않던?》하고 친절히 타일르는 것이였다.

이 말에 석주는 더 할 말이 없는듯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구라인다에서는 림 홍영, 주 고화 동무들이 불꽃을 튕기며 침착하게 본을 떠 낸 이식삽을 갈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옆에 다가 갔을 때는 구라인다에서의 그들의 작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목선반에서 자루만 깎아 맞추면 훌륭한 이식삽이 완성된다.

그들은 곧 목선반 기대들이 놓인 곳으로 옮겨 가서 또 자루를 깎아 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작업은 공정에 따라 한 기대에서 또 다른 기대에로 옮겨가며 척척 진행되여 갔다.

나는 작업의 전 공정을 통하여 그들의 능숙한 솜씨에 감탄하였다.

알고 보니 이들은 1학년 분단 동무들로 조직된 크루쇼크원들이였다. 그런데 이들은 벌써 목공 작업에서 백묵함, 곡척, 세면 도구대 등 수십 점의 공작품을 만들었고 철공 작업에서는 400 여 점의 문걸이, 문손잡이, 보강철 등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 작업으로는 이미 300 여개의 송곳을 만들었고 이식삽은 식물 크루쇼크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 한다.

2 학년과 3 학년 분단의 공작 크루쇼크에서는 더 많은 여러 가지 공작품들이 제작되였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2학년 공작 크루쇼크원들이 만든 접철과 도라이바는 도내 작품 전람회에 출품되여 많은 관중들의 호평을 받게까지 되였고 3학년 크루쇼크원들이 부러진 자동차 스프링을 가지고 만든 30 여 개의 대패날과 50 여 개의 대패집은 그 질이 사온 것에 못지 않게 제작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학교 공작 크루쇼크가 활발히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9월부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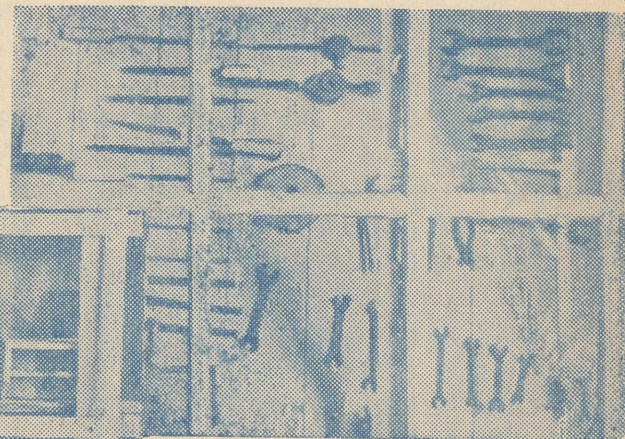
물론 공작실을 꾸미기 위한 사업은 그 전 해 12월부터 시작되였다. 처음에는 공작 도구들을 하나 둘 수집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사업에서 대 위원회는 매개 분단과 반들에서 동무들의 생활에 꼭 필요되는 물건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면서 한편 자기의 가정들에 꼭 필요한 것 이외에 마치나 집게 같은 것이 있으면 학교에 모아 오는 일들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공작에 필요한 도구들을 원만히 갖추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학부형들에게 과외 교양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교육성 성령 12호의 정신을 해설하면서 학부형들의 힘을 많이 얻기로 하였다.

얼마 후 학교에는 톱, 자구, 끌 등 목공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과 스빠나, 마치, 집게 등 철공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이 180 여 점이나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으로 공작실은 약간한 설비를 갖추게 되였다. 공작실에서는 소년단원들의 간단한 작업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장난삼아 물건들을 만드는데 그치고 작업의 질서와 규률은 전혀 서 있지 못하였다. 많은 동무들은 자기가 만들던 물건을 완성하기도 전에 남이 새로운 것을 만들면 자기가 만들던 것은 내 던지고 새 것을 만드느라고 자재를

↑ 42 종의 공작 기구들을 370 여 점이나 마련하였다.

———◇———

← 이들이 만든 공작품은 1,200 여 점이나 된다.

망탕 없애기도 하였다. 또한 작업을 끝내고도 사용하던 도구를 이리저리 내던져 못 쓰게 만드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 위원회는 작업의 질서와 도구 사용에서 규률을 바로 잡기 위한 문제를 의논하고 작업은 분단, 반 단위로 조직하며 사용한 도구들은 반드시 제 자리에 정돈하는 제도를 세워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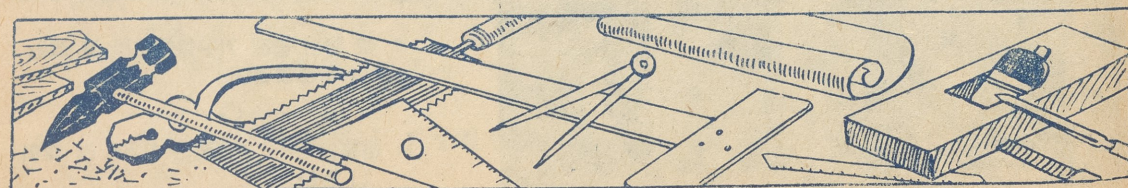
그러면서 대 위원회는 기계의 부속품 조립에 관심 있는 동무들로서 자동차 수리 공장 견학을 조직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금속 협동 조합 견학을 통하여 철판의 용도와 기구의 사용법들에 대하여 많이 배울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대 위원회는 공작실 설비를 더 훌륭히 갖추기 위하여 《피마 5개년 계획》 활동에서 수집된 페품들을 수매 시킨 돈으로 볼반, 목선반, 등 공작 기계들과 바이스, 줄 등 정밀 기계들을 더 많이 마련하기에 노력하였다.

이리하여 공작실에는 국가 가격으로 90여 만원에 달하는 각종 기계 기구들이 갖추어졌다. 그 가운데는 제재기와 용접기등 중요한 기대들을 제외하고도 210 여 점의 철공 도구들과 140 여 점의 목공 도구들, 20 여 점의 야장용 도구들이 들어 있다.

이제는 목공, 철공, 종합 작업에 이르기까지 공작실 작업은 무엇이든 마음 대로 할 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설비가 훌륭히 갖추어지자 대 위원회는 지난 새 학년도에 들어서면서 각 학년 별 크루쇼크를 조직하고 정 규현 선생의 지도 밑에 매주 토요일을 공작 크루쇼크 운영의 날로 정하고 공작 실습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크루쇼크원들은 각 학년 공작 교수에서 배운 목공, 철공, 종합 작업에 이르는 모든 공작 실습들을 빠짐없이 진행하면서 배운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다지였다. 뿐만 아니라 크루쇼크에서는 삼바리 마찰측정기, 관성 실험기 등 물리 실험 기구들을 비롯하여 각 과목 교수에 필요되는 각종 실험 기자재들까지도 훌륭히 제작하였다.

그러나 크루쇼크원들의 작업에서도 처음엔 도면에 의한 정확한 제품들을 만들지 못한데서 쓸모없는 물건들을 만들어낸 페단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해 10월 1학년 크루쇼크원들이 백묵함을 만들던 첫 작업에서였다. 크루쇼크원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 나는 대로 도면없이 백묵함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 완성된 백묵함들이 큰 것, 작은 것, 길고 좁은 것 등 여러 가지 형으로 된 것들이 나왔고 그 가운데는 뚜껑이 맞지 않는 오작품들도 있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었다. 크루쇼크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회의에서 내 놓은 표준 설계에 의한 조립식 건설 방법이 왜 필요한가를 의논하면서 표준 설계는 건설에서 뿐만 아니라 공작품 제작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으며 앞으로는 정확한 표준 도면에 의한 작업을 진행하기로 의논하였다.

그 후부터 크루쇼크원들의 모든 작업은 정확한 표준 도면에 따라 진행되게 되였다. 지난 해 겨울 시내의 9 개 학교들에 부삽, 불갈구리, 불피챙이 등을 각각 20 여 조씩 만들어 선사한 것도 똑 같은 규격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제 크루쇼크에서는 공화국 창건 10 주년 기념 전국 교육 전람회에 보낼 목선반과 기타 제품들도 훌륭히 만들게 되리라는 것이였다.

사회주의 조국의 훌륭한 기술자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공작실 작업을 통하여 더 많은 기대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꼭 배우기에 더욱 힘써 나아가고 있다.

이상한 풀피리

글 박 인 범　　　　그림 현 재 덕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욕심이 많고 인정, 사정도 없는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년 내내 땀흘려 농사지은 농사'군에게서 땅 세, 연장 세, 소를 부린 세로 많은 곡식을 빼앗아 가서 소작인들을 못살게 하는 욕심쟁이 지주가 말입니다.

봄철이 되여서 굶주린 소작인들이 약간의 곡식을 꾸어 달라고 해도 꾸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간 꾸어 준 다음에는 꾸어 준 분량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요구했고 그것도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소작인을 끌어다가 고'간에 가두고 소처럼 부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에게는 겨우 열 두 살 밖에 나지 않는 어린 몸'종이 있었습니다.

곱살스럽고 아주 똑똑하게 생긴 아이여서 누구나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귀엽게 여길 만큼 생긴 그런 아이였답니다. 이름을 《유두》라고 부르는 아이였어요.

《유두》라고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지주가 지난 해 6월 보름 즉 유두날 소작인의 집에 가서 빚 값으로 끌어다가 강제로 부려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두라고 불렀답니다.

이렇게 나이 어린 아이를 끌어 온 지주는 그 날부터 밤이나 낮이나 아무 때라도 생각나는 대로 담배'대를 뚫려라, 타구를 가셔라, 버선을 벗겨라, 발톱을 깎아라, 파리를 날려라, 어깨를 주물러라 하고 부려 먹었습니다. 바로 입 안에 혀처럼 부려 먹었지요.

그러니 이제 열 두 살 밖에 나지 않는 어린 아이가 하루 종일 또 밤이 늦도록 이따위 심부름을 하자니 얼마나 짜증이 생기겠어요. 허리는 굽신굽신 해야 하고 무릎은 줄창 꿇고 앉아야 하니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마을에 같이 놀던 동무들의 생각은 얼마나 났겠어요.

그러나 유두는 퍽 슬기로워서 이런 무서운 곳에서도 부질없이 울고만 있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악한 놈의 지주를

이겨 내고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 가고야 말리라—

하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어지간한 괴로움은 꿀꺽꿀꺽 참아 가며 원쑤를 갚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였습니다.

구질구질한 장마'비가 벌써 며칠을 두고 내렸어요.

그래서 개울과 연못, 어디나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로 이 부자 집 뒤뜰 밖에 있는 연못에도 흙탕물이 흥건히 고이게 되였답니다.

이렇게 되자 어디서 모여 왔는지 맹꽁이들이 "맹꽁" "맹꽁"하고 밤새도록 합창을 했습니다.

그러니 글쎄 낮에 실컷 일을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낮잠이나 자고 놀기나 하는 지주 령감이 밤에 잠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맹꽁" "맹꽁"하는 바람에 도무지 잠을 들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 날 초저녁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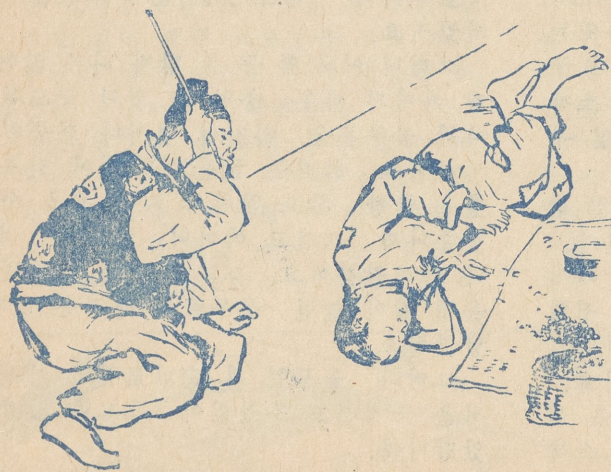
갑자기

《유두야—》

하고 걸직한 지주의 호통 소리가 들리더니 련거퍼 누가 숨이 넘어 가는지 《유두야—유두야—》

하고 부르드랍니다. 그래 유두는—이 놈의 지주 령감이 왜 야단이야?—

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네》

하고 대답한 다음 지주 령감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 놈 오늘 밤에는 저 뒤뜰 밖에 나가서 맹꽁이를 못 울게 해라 어서》

하고 명령을 하지 않겠어요.

유두는

《네? 맹꽁이를 못 울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원 잠을 잘 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마치 유두가 맹꽁이를 몰아다가 연못에 쓸어 넣은 것처럼 눈을 부라리며 야단 법석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없이 유두는 뒤뜰 밖으로 갔지만 참말 기가 막혔습니다.

유두는 연못'가에 턱을 고이고 앉아서 곰곰히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옷을 벗고 연못 속으로 들어가서 밤을 새울 수도 없는 일이구요.

이런 때였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는 맹꽁이들은 벌써 물 밖으로 머리를 내 밀고 "맹꽁" "맹꽁"하면서 합창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두는 얼른 손'벽을 "딱"하고 쳤습니다. 그랬더니 맹꽁이들은 움찔하면서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유두는

—옳다. 맹꽁이도 귀는 있구나—

하고 생각한 다음 맹꽁이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손'벽을 딱 치군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맹꽁이들은 또 다시 "맹꽁" "맹꽁"하고 합창을 되푸리하는 것입니다. 손'벽을 치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유두는 너무 안타까와서 얼핏 연못'가로 가서

《맹꽁아 오늘 밤만 조용해 주렴.

내 사정을 들어 보고 조용해 주렴.

악한 지주, 우리 주인 저는 자면서.

날 보고 이 연못을 지키라누나.

맹꽁아 맹꽁아 알아 주렴아

악한 지주, 우리 주인 제 잠 자려고 너희들의 노래를 막으라누나.

너희들의 즐거움을 빼앗으란다.

돌을 던져 너희들을 어찌 놀래며

너희들께 어떻게 모래를 뿌리랴.

휘파람 불어 줄게 춤이나 추렴.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춤이나 추렴》.

하고 간절히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참 이상도 하지요. 지금까지 "맹꽁" "맹꽁"하던 합창 소리가 뚝 그치는 거야요.

유두는 너무나 신통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해서 이리저리 맹꽁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풀 숲에서 큼직한 맹꽁이 한 마리가 툭 튀여 나오며

《그럼 네 말대로 노래를 그치고 춤을 추면서 놀테니 이 피리를 불어 주렴. 이 피리를 말이다》.

하고 자그마한 풀피리 하나를 내 놓는 거야요. 유두는

《이거 큰일 났네, 난 피리를 불 줄 모르는데!》

하면서 이리저리 피리를 살펴 보고 있으라니까 맹꽁이는 다시

《아니야 쉬운거야 불면 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유두는 피리를 입에 가져다 대고 살그머니 한 번 불어 봤지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 나오겠습니까.

《릴리리! 릴릴》

하면서 말입니다.

아주 옥구슬 소리 같은 소리를 마음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유두는

—맹꽁아들아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피리를 불고 나서

—그럼 어서 당실당실 춤이나 춰라—

하는 생각으로 곡조를 맞추어 피리를 불었더니 아닌게 아니라 맹꽁이들은 앞발을 번쩍 들더니 당실당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유두는 너무 재미가 나서 피리를 불고 불고 자꾸 불었습니다.

유두는 얼마 동안을 이렇게 피리를 불고 나니까 입도 좀 뻣뻣해지고 숨이 가빴습니다. 그래 유두는 불던 피리를 뚝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맹꽁이들도

《아이유 춤을 실컨 추었다. 아이 피곤해 고만 잠이나 자야지》.

하면서 저마다 척척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이였습니다.

그 때는 벌써 새벽 별이 안개 속에서 눈을 반짝 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두도 온 밤을 한 잠도 자지 못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욕심쟁이 지주 령감이 유두에게 낮 잠을 자라고 할리도 없습니다.

유두는 밤 잠도 낮 잠도 자지 못하고 진종일 지주 령감의 혀와 같이 잔심부름을 하며 돌아 가야 했습니다.

글쎄 이런 일을 여러 날째 하는 동안 맹꽁이를 잠들게 하는 재주는 늘었으나 잠을 자지 못한 까닭에 유두는 고단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인정, 사정 없는 부자 집 령감은 또

《유두야—》

하고 호통을 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놈 유두야 오늘 해 안으로 이 잣을 모두 까 놓아라, 만약에 못 다 까는 날에는 널 그냥 두지 않을테니까!》

하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지주는 온갖 맛 있는 음식으로 날마다 배를 채우면서도 잣으로 죽을 쑤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에 소작인들을 강제로 부려서 두 말이나 되는 잣을 구해다가 유두 앞에 놓으며 하는 말이였습니다.

글쎄 잣 두 말을 어린 유두 혼자서 어떻게 다 까겠습니까. 더군다나 밤마다 맹꽁이들을 재우느라고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한 유두가 말입니다.

유두는

—요 깍쟁이 같은 놈의 령감을—

하고 생각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 잣을 까던 유두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잣 그릇 옆에서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이것을 본 지주 령감은 담배 골통으로 유두의 머리를 갈겼습니다.

유두의 머리에서는 담박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지주 령감은 또 갈기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유두는 벌떡 일어나서 피하였습니다. 뒤뚱뒤뚱 지주는 유두를 좇아 갔습니다.

유두는 한 손을 머리에 대고 이 구석 저 구석으로 쫓기면서 힐금힐금 지주 령감의 꼴을 보았습니다.

이 때 지주 령감의 꼬락서니란 마치 어제 저녁에 보던 맹꽁이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야 이놈아 잠을 자? 잣을 까라니까 잠을 자?》

하면서 지주 령감은 계속 따라 옵니다. 이 때 유두는 얼핏 피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 맹꽁이 같은 거 풀피리나 한 번 불어 줄가보다 약이 더 오르게—

하고 생각이 들자 주머니 속에서 풀피리를 꺼 내서 불었습니다.

《삘릴리 삘릴리—》

하구요.

그랬더니 참 재미 있는 일도 다 많지요. 글쎄 지금까지 눈이 시뻘개서 좇아 다니던 부자 령감이 바루 맹꽁이 모양으로 두 손을 반짝 들더니 맹꽁이 모양으로 당실당실 춤을 추지 않겠어요.

유두는 한자리에 멈추어 서서 련달아 피리를 불고 또 불었습니다.

피리를 그칠 때는 부자 령감이 다시 덤벼 들테니까 더욱 세차게 피리를 불었습니다.

《삘릴리 삘릴리》

하고 유두가 피리를 천천히 불면 지주 령감은 느릿느릿 춤을 추고 피리 곡조를 재우치면 지주 령감은 빨리빨리 춤을 추는 것입니다.

유두는 이렇게 한 시간 동안이나 피리를 불었습니다. 악한 지주의 이마에서는 뚝뚝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유두는 계속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주 령감은

《아이구 죽겠다. 사람 살려주우》

하면서도 여전히 손을 흔들고 몸'짓을 하며 억지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유두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피리는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지주는 마침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유두는 그래도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주 령감은 자빠져서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버둥버둥 손과 발로 하늘을 허비적거렸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을 지난 후 유두는 악한 지주 옆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악한 지주는 눈을 감고 입으로는 침을 흘리며 거의 죽게 되였습니다.

유두는

—옳지 이런 때다—

하고 생각한 나머지 지주 령감의 방으로 들어 가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나와서 죄없는 농사'군들을 가둬 둔 고'간 문을 절꺽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갇혔던 소작인들이 고'간 속에서 나와서 지주 령감을 꽁꽁 묶었습니다.

다시는 돌아 오지 못할 먼 곳으로 보낼라구요.

그런 다음에 소작인들은 자기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모조리 찾아 냈습니다.

그 후부터 이 마을에는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기 혼자 보다 마을 사람 전부가 잘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려는 사람들 만이 살게 되였답니다.

편집 위원 김 학연(주필) 리 원우 박 응호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8년 5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5월 22일 발행 《소년단》 1958년 제 6 호 (총104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931 값 25원 80,000부 발행